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Old Book Collections Collected by the Families in the Area of Seoul and Gyeonggi-do from 1500 to 1945

임영란 (Lim, Young Ran)**

강순애 (Kang, Soon Ae)***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서울·경기 문중문고의 종합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서울·경기지역 문중문고의 형성
시기와 형태별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형성·발달한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가운데 현황 파악이 가능한 한상역문고, 수당문고, 성호문고, 경설재문고, 서계문고에 소장된 1,277종 7,844책을 대상으로 각 문고별 형성과 발달을 개관하였으며, 문고 형성 시기별 중심인물과 주제별·관종별 구성을 조사 분석하여 각 문중문고의 역사적·서지적 성격을 밝히고, 문고를 종합하여 집서별, 판본별, 주제별, 학파적 특성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서별 특성에 있어 소장본의 간행 시기는 1500년대 7종(0.54%), 1600년대 285종(22.31%), 1700년대 305종(23.88%), 1800년대 557종(43.61%), 1900-45년 123종(9.63%)이다. 각 문고의 형성 시기별 인물에 따라 주제, 판본, 간행본의 집서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상역문고의 한창수 시기와 수당문고의 민영달 시기는 19세기 말 개인의 관심에 집중된 수집문고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문고 형성에 기여한 인물들의 관직 재임 여부는 금속활자본·목활자본·목판본의 유입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판본별 특성은 필사본 406종(31.79%), 목판본 530종(41.50%), 금속활자본 160종(12.52%), 목활자본 61종(4.77%), 탁본 64종(5.01%), 석판본 18종(1.40%), 신연활자본 38종(2.97%)이다. 목판본이 가장 많으며, 개인의 학술활동의 결과물인 필사본이 그 뒤를 이었다. 성호문고처럼 手稿本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가학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되며, 서계문고의 탁본처럼 특정 판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가학의 경향으로 분석된다.

셋째, 주제별 특성은 경부 287종(22.47%), 사부 342종(26.78%), 자부 155종(12.13%), 집부 493종(38.60%)이다. 주제 분류에 의해 두드러지는 집서군에는 가학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별집류와 전기류에는 문중인물의 학파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경서류는 문중자체 교육용으로 집서되었다. 수당문고의 '잡사류', 성호문고의 '예류', 경설재문고의 '술수류', 서계문고의 '금석류'는 가학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넷째, 문고의 형성 초기에 드러나던 학파성은 19세기 이후 퇴색하고 진보적·개방적 성향을 드러내며 경학이나 예학의 주제에 따라 여러 학파의 견해를 모두 참고하여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고의 형성

* 본 연구는 2015년도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 한성대학교 시간강사(younggranlim@hanmail.net)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6년 9월 7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시기별 인물에 따라 학파적 경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며, 가학과 학파 변화 양상을 읽을 수 있다.

要語: 서울·경기지역, 문중문고, 한상역문고, 수당문고, 성호문고, 경설재문고, 서계문고

<ABSTRACT>

This is a bibliographical study of 7,844 books of 1,277 types from family collections from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 that can currently be tracked which were formed and developed from the late Joseon era to modern times: namely the Han Sang-eok Collection, Su-dang Collection, Seong-ho Collection, Gyeong Seol-jae Collection, and Seo-gye Collection. I survey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ach collection; researched and analyzed the central figures, themes and types of books that were formed with each development stage of the libraries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collections by collection form, print types, themes, and schools of though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on form show that 7 books were published in the 1500s (0.54%), 285 books in the 1600s (22.31%), 305 books in the 1700s (23.88%), 557 books in the 1800s (43.61%) and 123 books from 1900-1940 (9.63%) with the highest ratio of publication being from the 1800s. Each stage of the collection's development show a different inclination toward theme, type of printing, and book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ollector. As in the Han Chang-su era of the Han Sang-eok Collection and the Min Yong-dal era of the Su-dang Collection, we can observe book collections tha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collections concentrated on individual interests. The public office term of the individuals who contributed to the libraries influenced whether the books were metal type prints, wooden type prints or block books.

Second, the type of prints used are divided into 406 handwritten books (31.79%), 530 block books (41.50%), 160 metal type prints (12.52%), 61 wooden type prints (4.77%), 64 rubbing prints (5.01%), 18 lithographic prints (1.40%) and 38 lead type prints (2.97%). Block books were collected in the highest number, with handwritten books having the second highest number as the result of the individual's academic studies. The high percentage of handwritten books in libraries such as the Seong-ho Collection can be accounted for advancement in Hakpa, while a high percentage of special prints such as rubbing prints can be analyzed as a tendency toward Gahak.

Third, the themes were sorted into 287 Confucian classics (22.47%), 342 books on history and law and administration (26.78%), 155 philosophical works (12.13%) and 493 literary works (38.60%). The collections that are distinguished by themes show a tendency toward Gahak, while individual writings and biographies reflect the family individual's Hakpa inclinations. Confucian classics were collected to educate the children of the household. The unofficial historical documents of the Su-dang Collection, the documents on traditional rites of the Seong-ho Collection, the divination texts of the GyeongSeol-jae Collection, and the epigraphy studies of the Seo-gye Collection reflect Gahak tendencies.

Fourth, the dominance of Hakpa in the beginning of the collections weakened after the 19th century, revealing a more progressive and open character that referred to and accepted many schools of thought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the study of rites. Also, the collections showed different levels of Hakpa according to the individual in the collection's formation stage, which makes it possible to study the changes in Gahak and schools of thought.

Key words: Han Sang-eok Collection, Su-dang Collection, Seong-ho Collection, Gyeong Seol-jae Collection, Seo-gye Colle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이 생겨나기 이전 설립·운영된 조선시대 도서관 형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첫째 史庫·集賢殿·藝文館·弘文館이나 奎章閣 같은 왕립(국립)도서관, 둘째 成均館·書院·鄉校 등 교육기관에 설치한 學校圖書館, 셋째 寺刹文庫, 넷째 家學의 진흥과 문중 자제교육을 위한 門中文庫, 이 밖에 個人文庫가 있다(이춘희, 1974, 88). 이 중 문중문고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생겨나기 시작해 근대까지 사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문중인물과 정파·학맥을 같이하는 주변 인물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한국 정치사에 영향을 미친 개인이나 명문일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문중문고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있었으나 지역별 문중문고의 장서 전체를 분석하여 서지적 성격을 밝힌 포괄적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며, 현황 파악이 가능한 다섯 문중문고의 형성과 발달을 개관하고, 소장문헌의 서지조사로 형성 시기별 중심인물과 주제별·판종별 구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장서에 반영된 시기별 형성의 흐름이 문중의 세대별 역사와 관련이 있는지 살피고, 주제별·판종별 구성의 특성을 파악해 문중문고의 역사적·서지적 성격을 밝혔다.

둘째, 다섯 문중문고를 통합해서 간행 시기별 집서의 특성, 판본별, 주제별, 학파적 특징을 분석하고, 구성 판본의 특성, 집서에 반영된 家學의 특징, 주제별 구성의 성격, 학파적 경향을 파악하여 문중문고 장서의 종합적인 성격을 밝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중과 문중문고의 형성이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문헌에

나타난 문중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살피고, 문중문고의 형성과 발달, 서울·경기 지역의 문중문고에 대해 개관하였다.

둘째, 전체 장서의 서지사항이 공개되었거나 접근이 가능한 문고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각 문고 소장문헌의 실물 조사를 기본으로 서지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사가 어려운 경우 소장기관 제공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 자료와 목록 및 해제집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대상 문고는 한상억문고 430종 3,775책, 수당문고 173종 1,435책, 성호문고 166종 755책, 경실재문고 165종 402책, 서계문고 343종 1,478책이다. 소장처의 문고명을 준용하고, 없는 경우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의 號로 명명하였다.

셋째, 서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성 시기별 집서 형태 분석을 위해 각 문고의 장서별 집서 시기와 형성 시기별 대표 인물을 분석하였다. 집서 시기는 전체 소장본을 판본별로 구분한 후, 필사본은 手稿本은 저자의 생존 시기로, 原稿本은 필사자의 생존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轉寫本은 전사 시기가 분명한 경우는 전사한 시기로 구분하고 불분명한 경우엔 전체 장서의 집서 흐름을 참고로 판단하였다. 간행본은 藏書記나 藏書印으로 파악되는 기록 주체의 생존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기록이 없는 경우엔 전체 장서의 집서 흐름과 간행 시기 및 문고 형성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참고로 판단하였다. 간행 시기가 불분명한 간행본은 문헌조사, 표준목록 및 해제, 전문가 감정 의견을 참고로 추정하였다.

넷째, 주제별 분석은 四部分류를 적용하고 類目別 세부분류를 통해 드러나는 문고별 대표적 주제군을 파악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판본별 분석은 필사본·목판본·금속활자본·목활자본·탁본·신연활자본·석판본 등의 비율에 반영된 문고별 장서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문고 전체 장서의 간행 시기별·인물별 집서의 특성, 판본별, 주제별, 학파적 특성을 분석해 문중문고에 반영된 장서의 종합적 성격을 밝혔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경기도 여주의 ‘여주이씨문고’는 소재 파악은 하였으나 열람이나 서지조사를 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이 외에 경기도 남양주의 해주정씨가 문중문고 등이 있으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문중문고가 더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둘째, 문중문고 소장문헌 중 1945년 이전에 간행된 東裝本 전적과 成冊된 고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낱장 고문서는 제외하였다.

1.3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문중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개별 문중의 사례 연구,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서지학적 관점의 문중 소장문헌에 대한 연구가 있다.

첫째, 문중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재석(1983)은 문중의 형성과 기능에 대해 연구하여 문중이라는 명칭 이외에 族中, 門黨, 宗中, 族, 宗契, 門契, 同宗契 등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문중이 세종조 이후 대체로 16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해준(1993)은 조선 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연구를 통해 성리학적 예제의 보급과 정착, 향안 질서의 해체와 사족의 위상 변화, 동족마을의 형성 시기와 배경, 문중활동의 양상을 밝혔다. 성봉현(2002)은 族契의 유행 배경이 종법질서의 정착에 따른 제사의 일반화와 대종에서 소종으로 증가된 친족 파벌의 결속, 친족들의 분산 거주에 따른 결속도모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김보경(2005)은 문중공동체의 특성을 혈연적 집단으로서 공통의 연대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정승모(2006)는 조선 후기 동족촌락의 형성과 친족조직화와 문중계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제사를 통한 종법의 적용이 계기를 밝혔다. 이욱(2011)은 문중서당은 문중 내부의 결속력 강화와 가학의 전승을 목표로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둘째, 개별 문중의 사례에 대한 연구로, 오영교(2002)는 초계정씨 關東派 문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을 밝혔다. 김필동(2009)은 파평윤씨 魯宗派의 宗約이 문중 형성의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사족 문중의 형성 이유와 발전 과정을 밝혔다.

셋째,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정구복은 서울 및 畿湖地方의 고문서 소장 현황과 그 성격을 밝히고(1992), 호남지방 고문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1999). 안승준(1999)은 경상북도 안동 소재 眞城李氏家 고문서에 대한 기초연구

를 수행하였고, 박명희(2001)는 전남 영암군 소재 마을의 여러 성씨 문중에 보존 중인 譜系類 典籍을 분석하여 門中文獻의 기록범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넷째, 서지학적 관점의 문중 소장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춘희는 壽峰精舍와 映奎軒文庫를 분석하여 문중문고를 문중자제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문고로 정의하였다(1974). 김동황(1991)은 冲齋 權機 집안 문중문고와 三溪書院의 장서에 대해 집서현황과 주제별·판종별 분포를 밝히고, 소장문집류와 實記의 분석을 통해 지역적, 학파적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배현숙은 퇴계의 장서에 대한 연구를 하여 서원문고가 서원에 주향된 인물 또는 후손과 설립자의 개인장서를 토대로 형성되었음을 밝혔고(1994), 전남 곡성의 默容室 장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집서 성격을 밝혔다(1993). 옥영정(2000)은 함양박씨가 ‘味山文庫’의 고서와 고문서를 망라한 서지적 분석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였다. 임영란(2005)은 명재문고의 형성 시기 및 장서 구성을 조사하고, 주제별·판종별 분석을 통해 문고의 서지적 성격을 밝혔다. 송일기, 우정훈(2008)은 정미수 소장 고문헌의 서지적 특성을 밝히고, 고문서 분석을 통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임을 밝혔다.

2. 이론적 배경

2.1 문중 및 문중문고의 형성과 발달

‘門中’은 父系 공동조상의 제사를 위해 조직된 부계 4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친자손 집단으로 정의한다. ‘朋黨’이 정파적·학파적 이해를 같이한 집단적 결속이었다면, ‘문중’은 향촌지배와 현실대응책 마련을 위한 혈족간의 결속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지식집단의 정치·사회적 입지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문중’의 연원은 고려 말 과거제도로 등용된 ‘能文能吏’ 지식층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 官學인 성균관 출신으로 집현전에서 연구한 학자

집단으로 소위 ‘官學派’로 분류된다. 이후 세조의 왕권 찬탈에 협조하여 실권을 장악한 집단이 ‘勳舊派’이며, 협조를 거부하고 권력에서 소외된 집단과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士林派’이다. 사림과 중심의 씨족집단 생성이 ‘문중’의 모체로, 이들은 대부분 중소지주층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향촌사회에서의 기반 확장을 위해 결집을 도모하였다.

1568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훈구파의 몰락이 시작되고, 사림파는 선조 8년(1575) 동인과 서인으로 分岐하여 朋黨정치 시대를 열었다. 동인은 주로 李滉·曹植의 문인들과 徐敬德 문인들이 주축을 이룬 學緣의 성격이 짙은 집단이었고 서인은 대체로 近畿지역에 세거하던 고관들을 주축으로 李珥·奇大升·金麟厚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동인은 己丑獄事를 기점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고 서인은 仁祖反正을 계기로 功西派와 淸西派로, 청서파는 庚申換局 때 이이와 宋時烈的 추종세력인 老論과 咸湍·尹拯의 추종세력인 小論으로, 노론은 이후 ‘人物性同異論’ 논쟁으로 근기지역 중심의 洛論과 충청지역 중심의 湖論으로 분기되었다. 봉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政派的·學派的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7세기는 가족제도 변화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데, 조선 전기까지 가족제도가 內外親이 망라된 양계 친족체계라면, 17세기 이후엔 적자 중심의 부계친족의 씨족으로 개념이 특정되고, 이로 인해 太宗으로부터 갈려나온 小宗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결속을 위한 ‘宗契’가 출현하는데, 이것이 초기 문중의 조직화 형태이다. 성리학적 禮制의 보급이 가속화 되면서 종법적 제사제도가 확산되면서 부계혈족을 기반으로 한 배타적 씨족집단인 문중의 성립이 본격화된다(김필동, 2009, 32).

‘문중화’는 문중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문중의 대표적 기능은 ‘祭祀’, ‘儒敎的 血緣秩序의 수립’, ‘吉凶事 협조’, ‘子弟敎育 및 家學傳乘’ 등으로 요약된다(최재석, 1983, 29-43).

문중의 ‘자제敎育 및 가학전승’을 위해 생성된 것이 ‘문중문고’로, 서당이나 학계를 마련하고 서책을 구비한 문고 형성으로 나타난다. 각 문중은 정파나 학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자제敎育이나 가학 역시 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문고는 혈연과 학연, 정파의 영향을 반영하며 성장하였다.

문중문고는 官版 전적의 內賜 등을 통한 유입, 문중 내부의 저술이나 선대의 遺文, 遺蹟의 정리 결과물, 학파·정파·학맥을 같이 하는 문인이나 인물들의 기증, 교육용 서적의 구입 등을 통해 성장하였다. 가문의 위상이나 가학의 경향에 따라 소장 전적의 규모나 내용은 확연히 달라지며, 문중의 세대별 용체는 규모나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영·정조 연간부터는 서적 수입이 활발해지고 외국의 전적이 집서되기도 하면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제도 와 인식의 변화로 고서를 치부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나 적극적 장서수집으로 수집문고 내지는 개인문고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2.2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는 近畿禮學의 중심인 기호학파의 노론계와 소론계, 영남학파 남인계인 星湖禮學에 기반을 둔 근기실학파 문중에서 형성되어 발달하였다.

숙종대 이후 유통경제 활성화로 서울의 도시화에 따라 문화의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향학계의 분기를 초래하여 사림은 京華士族과 鄉儒로 나뉘게 되었다. 경화사족은 근기남인, 소론 및 북학을 수용한 노론 낙론계 학자들을 주류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형성된 집단이다. 경화사족의 문중문고는 파보·족보·문집의 간행을 통한 문중홍보(이해준, 1993, 186)의 결과물과 가학 전승, 정파·학파의 인적 교류를 통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18세기 이후 경화사족의 학문교류는 학파나 정파, 신분을 뛰어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방성은 학파를 초월한 폭 넓은 학문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학문적 경향이나 시대적 변화는 문고의 장서에 반영되었다.

3. 서울·경기지역 문중문고의 형성 시기와 형태별 분석

3.1 한상억문고(韓相億文庫)

한상억문고는 선조의 사위 洪柱元¹⁾의 후손 洪仁謨의 아들 삼형제 淵泉 洪奭周·沆瀣 洪吉周·海居齋 洪顯周 등에 의해 형성된 풍산홍씨 문중문고가 홍석주의 사위 청주한씨 霞石 韓弼教에게 상속되고, 經香(또는 眉山) 韓章錫과 그의 아들 穎愛 韓昌洙에 의해 확충된 총 430종 3,775책의 장서를 이룬 문중문고이다. 韓相億씨가 1937년 6월 기증하여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한상억문고²⁾’로 관리되고 있다.

3.1.1 문고의 형성

한상억문고는 청주한씨 蘭室 韓元履, 풍산홍씨 연천 홍석주 시기까지는 양 문중에서 형성되다가 풍산홍씨 문중문고가 한필교에게 상속되면서 합쳐졌다.

<그림 1> 가계도에 의거, 풍산홍씨 문중문고 형성에 기여한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산홍씨 문중문고는 睡隱 洪錫輔의 아들 洪象漢³⁾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홍석보는 평안감사 때 대규모의 도서간행을 했던 인물로(임영란, 2013, 284), ‘豊山洪氏象漢雲章印’이 날인된 『國語』가 소장되어 있다.

둘째, 풍산홍씨가 문고 형성의 중심기는 홍석주⁴⁾ 시기이다. 형성된 장서는 총 110종으로, 전체 장서의 25.6%이다. 홍석주는 중국의 사고전서식 분류순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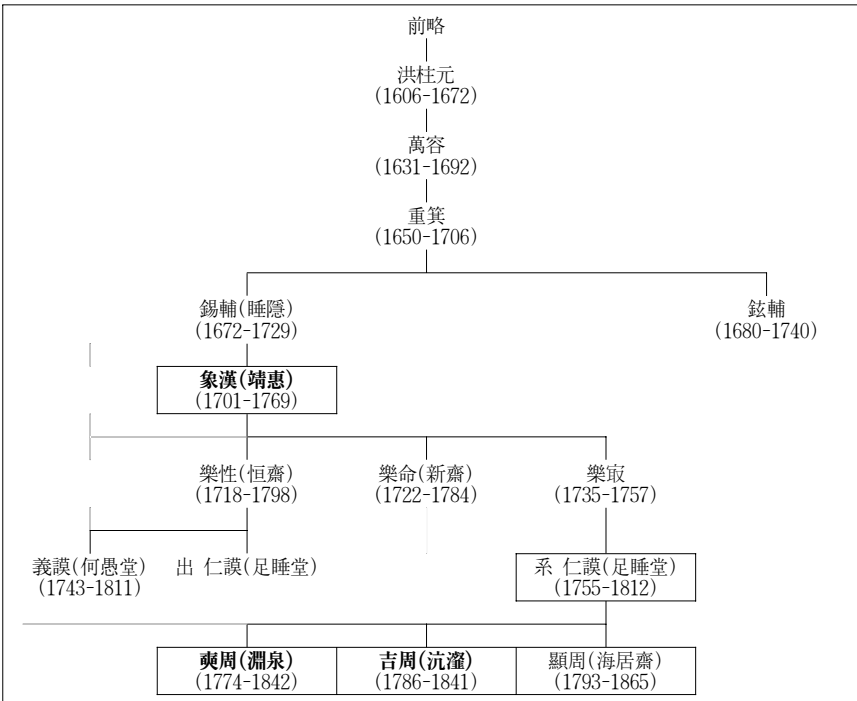
1) 洪柱元(1606-1672). 자는 建中, 호는 無何堂. 貞明公主에게 장가들어 永安尉에 봉해졌다.

2) 한상억문고 소장전적 조사는 1977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고서목록』에 수록된 『한상억문고』 장서 부분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실사를 통해 서지조사를 완료하였다.

3) 洪象漢(1701-1769). 자는 雲章. 魚有鳳의 문인이자 사위.

4) 洪奭周(1774-1842). 초명은 鎬基, 정조하사명으로 개명했다. 자는 成伯, 호는 淵泉.

해제목록인 『洪氏讀書錄』을 저술하고, 분류순 선정송독편장목록 『四部誦惟』를 편찬하였다. 홍길주⁵⁾는 4편의 저술을 남겨 소장되어 있으며 홍현주⁶⁾의 저술 또한 소장되어 있다. 이 시기 저술뿐만 아니라 구득활동을 통해 장서의 증가를 도모하였는데, 중국서의 집서에도 힘을 써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림 1> 풍산홍씨 홍석주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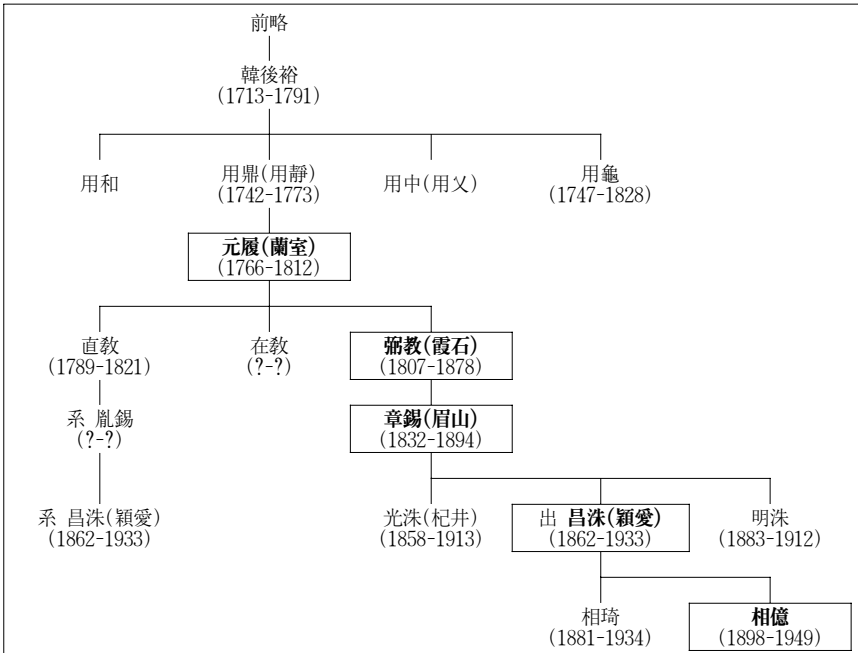
이 장서는 청주한씨가의 장서와 합쳐져 한상억문고를 이루게 되었다. <그림 2> 청주한씨 한필교 가계도에 의거하여 문중문고에 기여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洪吉周(1786-1841). 자는 憲仲, 호는 峴山子·守一齋·沆瀣子.

6) 洪顯周(1793-1865). 자는 世叔, 호는 海居齋·約軒.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첫째, 청주한씨 문고 형성은 한원리⁷⁾ 시기(1766-1812)에 시작되었는데, 형성된 장서는 총 4종으로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그림 2> 청주한씨 한필교 가계도

둘째, 한필교⁸⁾ 시기(1807-1878)의 집서 전적은 54종으로, 전체 전적의 12.5%이다. 양가의 장서가 합쳐지면서 본격적으로 문중문고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金世均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해서 근무하던 철종 12년(1861)에 인쇄해 보내주었다”는 受贈記⁹⁾가 있는 『常變通攷』는 당시 전적 유통 형태에 파

7) 韓元履(1766-1812). 자는 士善, 호는 蘭室.

8) 韓彌教(1807-1878). 자는 輔卿, 호는 霞石. 穆陵參奉·상서원부직장·예빈시주부·호조좌랑 등을 역임했다.

9) ‘嶺伯金公翼世均(1812-1879)印惠辛酉(1861)夏. 嶺伯金公翼印送於辛酉七月以余曾有請故也其意甚可感也’

악에 참고가 된다.

셋째, 한장식¹⁰⁾ 시기(1832-1894)에 집서된 장서는 총 44종으로 전체 장서의 10.2%이다.

<표 1> 한상역문고 형성 시기별 현황

(단위: 종(책))

형성	내용	四部	筆寫本 種(冊)	木板本 種(冊)	金屬活字本 種(冊)	木活字本 種(冊)	石版本 種(冊)	新鉛活字本 種(冊)	拓本 種(冊)	計	비율 (%)
蘭室 韓元履 (1766-1812)	經		·	·	·	·	·	·	·	·	·
	史		·	1(1)	·	·	·	·	·	1(1)	25.0
	子		·	1(2)	·	·	·	·	·	1(2)	25.0
	集		·	2(37)	·	·	·	·	·	2(37)	50.0
	소계		·	4(40)	·	·	·	·	·	4(40)	0.9
淵泉 洪奭周 (1774-1842)	經		·	15(141)	1(10)	·	·	·	·	16(151)	14.5
	史		2(3)	14(183)	8(25)	2(3)	·	·	6(6)	32(220)	29.0
	子		7(12)	4(16)	1(7)	1(2)	·	·	1(1)	14(38)	12.7
	集		9(41)	22(295)	12(96)	5(32)	·	·	·	48(374)	43.6
	소계		18(56)	55(635)	22(138)	8(37)	·	·	7(7)	110(873)	25.6
霞石 韓弼教 (1807-1878)	經		3(4)	10(43)	·	·	·	·	·	13(47)	24.0
	史		4(6)	5(19)	1(3)	4(7)	·	·	·	14(35)	25.9
	子		2(3)	2(4)	2(14)	·	·	·	·	6(21)	11.1
	集		8(13)	7(48)	3(15)	3(51)	·	·	·	21(127)	38.8
	소계		17(26)	24(114)	6(32)	7(58)	·	·	·	54(230)	12.5
眉山 韓章錫 (1832-1894)	經		2(4)	4(54)	·	·	·	·	·	6(58)	13.6
	史		6(9)	2(5)	·	·	·	·	1(1)	9(15)	0.4
	子		1(1)	2(48)	·	·	·	·	3(3)	6(52)	13.6
	集		11(20)	8(161)	2(47)	1(6)	·	1(2)	·	23(236)	52.2
	소계		20(34)	16(268)	2(47)	1(6)	·	1(2)	4(4)	44(361)	10.2
穎愛 韓昌洙 (1862-1933)	經		·	32(282)	1(1)	·	·	1(1)	·	34(284)	15.7
	史		7(29)	19(484)	11(47)	5(12)	·	5(60)	1(1)	48(633)	22.2
	子		1(1)	10(171)	2(4)	·	3(32)	·	1(1)	17(209)	7.8
	集		12(24)	57(626)	25(298)	9(130)	6(27)	8(28)	·	117(1133)	54.4
	소계		20(54)	118(1563)	39(350)	14(142)	9(59)	14(89)	2(2)	216(2259)	50.2
韓相億 (1898-1949)	經		·	·	·	·	·	·	·	·	·
	史		·	·	·	·	·	·	·	·	·
	子		·	·	·	·	·	·	·	·	·
	集		·	·	·	·	1(5)	1(7)	·	2(12)	100
	소계		·	·	·	·	1(5)	1(7)	·	2(12)	0.4
	총계 種(冊)(%)		75(170) (17.4)	217(2620) (50.5)	69(567) (16.0)	30(243) (7.0)	10(64) (2.3)	16(98) (3.7)	13(13) (3.0)	430(3775)	100

10) 한장식(韓章錫, 1832-1894). 자는 穉綏·穉由, 호는 眉山·經香.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장석이 40세 때에 지은 문집의 自序에 따르면 “어렸을 때 지은 古文詩 『萬里初程』 8권, 『花石稿』 2권, 『樂山集』 2권, 17세부터 24세까지 지은 『三觀甲稿』 7권, 24세부터 40세까지 지은 시 3권, 文 6권의 『經香館乙稿』, 이 밖에 外書로 『經疑筭錄』, 『山水游記』, 『筆談』 등이 있다.”¹¹⁾고 하였으나 본 문고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넷째, 한창수¹²⁾ 시기(1862-1933)는 총 216종으로 전체 장서의 50.2%이다. 중국 본과 일본본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弘齋’와 ‘萬機’가 낱인된 정조의 舊藏本 중국목판본 『欽定春秋傳說彙纂』, 『欽定詩經傳說彙纂』, 『欽定書經傳說彙纂』으로 이 시기에 집서되었다. 장서의 학파적 경향도 기호학과 노론계에서 벗어나 남인, 소론계의 저술이 망라되어, 학맥이나 정파성을 벗어난 문고로 변모하였다.

다섯째, 한상익 시기(1898-1949) 형성 장서는 『미산선생문집』과 韓晦善의 문집 『腹齋先生遺稿』뿐이다. 한상익은 책보다는 그림이나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수집가로 확인된다.¹³⁾ 한상익문고를 형성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1.2 주제별 분석

경부는 69종(16.0%), 사부는 104종(24.2%), 자부는 45종(10.2%), 집부는 213종(49.5%)이다. 세부유목 및 구성 비율은 <표 2>와 같다. 주제별 특성이 드러나는 주제군은 經學 및 儒家類, 金石類, 歷史·傳記類, 政法類, 地理類, 藝術類 및 簡牘類, 詩文類 분야이다.

경학 및 유가류는 총 82종으로 전체 장서의 19.0%이며, 문중 자체 교육용 경전이 구비되어 있으며, 문중인물의 경학 및 유가사상 연구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다. 금석류 9종은 대부분 탁본이다. 집서는 한장석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11) 韓章錫, 『眉山先生文集』 『自序』.

“… 童子時所習古文詩 有曰萬里初程八卷, 花石稿二卷, 樂山集二卷 ….”

12)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2009). 韓昌洙(1862-1933). 자는 景文, 호는 穎愛.

13) 『조광(朝光)』 1937년 3월호 「진품수집가비장실역방기(珍品蒐集家秘藏室歷訪記)」에 의하면 그는 서화와 골동품을 많이 수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중의 교유인물들이 제작한 탁본류가 유입되어 있어 금속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나 집서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사부분류에 따른 한상역문고의 주제별 분포

(단위: 종(책))

사부	유목	수량	비율(%)	계	비율(%)
經	四書類	27(149)	39.1	69(540)	16.0
	書類	3(26)	4.3		
	小學類	10(115)	14.5		
	詩類	3(36)	4.3		
	易類	4(17)	5.8		
	禮類	13(115)	18.8		
	總經類	2(36)	2.9		
	春秋類	5(44)	7.2		
孝經類	2(2)	2.9			
소계	69(540)	100			
史	系譜類	6(13)	5.7	104(904)	24.2
	金石類	9(9)	8.6		
	別史類	5(28)	4.8		
	史表類	1(1)	0.9		
	書誌類	2(235)	1.9		
	雜史類	4(9)	3.8		
	傳記類	33(74)	31.7		
	政法類	13(81)	12.5		
	正史類	3(82)	2.9		
	詔令奏議類	4(29)	3.8		
	地理類	11(78)	10.6		
	職官類	1(1)	0.9		
	抄史類	1(3)	0.9		
	總史類	1(2)	0.9		
編年類	10(259)	9.6			
소계	104(904)	100			
子	兵家類	1(4)	2.3	44(322)	10.2
	西學類	1(3)	2.3		
	術數類	3(8)	6.8		
	藝術類	12(16)	27.3		
	儒家類	13(63)	29.5		
	類書類	4(61)	9.1		
	醫家類	3(42)	6.8		
	雜家類	3(80)	6.8		
	天文算法類	2(4)	4.5		
	總子類	2(41)	4.5		
소계	44(322)	100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증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사부	유목	수량	비율(%)	계	비율(%)
集	簡牘類	11(13)	5.2	213(2,009)	49.5
	別集類	160(1,594)	75.5		
	小說類	4(51)	1.9		
	總集類	38(351)	17.9		
	소계	213(2,009)	100		
총계		430(3,775)		430(3,775)	100

역사·전기류 중 역사서는 22종으로 전체 장서의 5.2%인데, 홍인모가 저술하고 홍석주가 편술한 『續史略翼箋』, 홍석주의 手稿本 『東史世家』가 있다. 전기류는 33종으로 구장자의 장서인이 날인된 전적이 많으며, 대부분 한창수 시기에 수집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창수 이전 시기에 집서된 전기류 인물의 학파적 경향은 기호학과 노론계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나, 한창수 시기에 유입된 전기류는 학맥이나 학파의 경향보다 한창수 개인의 애서성향이 반영된 집서로 분석된다.

정법류는 13종으로 전체 장서의 3%이다. 대부분 한창수 시기에 집서된 것들이며 이 중 의궤류는 2종으로, 고종의 五旬 기념 만찬회 기록인 1901년의 『進宴儀軌』와 고종의 59세 기념 만찬회 기록인 1902년의 『진연의궤』 2질이 있다.

지리류는 총 11종으로 전체 장서의 3% 정도이며 인문지리서와 기행문, 지리교과서로 세분된다. 한필교가 1831년에 謝恩正使 홍석주의 자제교관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한 『隋槎錄』은 원래 홍석주와 한필교가 함께 기록한 것으로 연구 가치가 높다.

예술류와 간독류는 22종이다. 판중별로는 수고본을 포함한 필사본 16종, 목판본 1종, 탁본 5종이다. 간독류는 역대 명인의 유목을 모아 감상하기 위한 예술적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문류는 희귀본들이 대거 소장되어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장서군으로 평가된다. 별집류 160종, 총집류 38종이며 총 198종으로 전체 장서의 46%이다. 장서에 반영된 학파적 경향은 노론계로 분석되지만, 한창수 시기에는 조선시대 역대 유명 인물의 시문이 유입되면서 기준에 견지되었던 학파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3.1.3 판종별(版種別) 분석

판종은 필사본 75종(17.2%), 목판본 217종(50.4%), 금속활자본 69종(16.0%), 목활자본 30종(6.9%), 탁본 13종(3%), 신연활자본 16종(3.7%), 석판본 10종(2.3%)이다.

필사본 총 75종 중 25종이 수고본 또는 원고본으로 전체 장서의 5.8%를 차지한다. 주로 역대 유명인물의 간찰첩과 글씨첩을 비롯하여 문중인물의 수고본류와 한창수 시기에 집서된 간독류와 예술류이다.

목판본은 총 217종으로 전체 장서의 50.4%이다. 국내 간행본은 124종(57.1%)이며, 중국본이 76종(35.0%), 일본본이 17종(7.8%)이다. 홍석주 시기에 경학의 기본서가 구비되어 순조 20년(1820)에 내각장관 경서 대부분이 집서되어 있다. 중국본은 홍석주와 한장석과 한창수 시기에 집서된 책들이다.

금속활자본은 69종으로 무신자본 5종, 현종실록자본 2종, 교서관인서체자본 12종, 율곡전서자본 1종, 임진자본 3종, 정유자본 2종, 전사자본 25종, 정리자본 13종, 제주한구자본 2종, 정리자체철활자본 4종이다. 무신자 이전의 금속활자본은 없으나, 무신자 이후의 官版 금속활자본은 매우 풍부하여 조선 후기 금속활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관판 간행서의 유통은 대부분 內賜를 통했으므로 문중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목활자본은 30종으로 전체 장서의 7.0%이다. 훈련도감자본 3종, 교서관필서체자본 3종, 금릉취진자본 3종, 지갯다리획인서체자본 4종, 학부목활자본 3종, 임정주자본 1종이며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목활자본 14종이다. 조선 후기의 목활자인본이 비교적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기타 석판본은 총 10종이다. 『雲養集』·『荷亭集』·『白沙集』·『蓮坡詩鈔』·『盤菴文稿』·『腴齋先生文稿』 등은 전본이 드물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장서이다. 신연활자본은 16종이다. 중국본에는 滄江 金澤榮이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중국으로 망명해 간행한 책들이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 탁본은 총 14종으로 금석류와 예술류이며 홍석주, 한장석 시기에 집서된 것이다.

3.1.4 한상역문고의 서지적 특성

한상역문고 장서의 간행 시기, 문고의 형성 시기, 집서별 특성, 주제별 특성, 판본별 특성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행 시기는 선조 23년(1590) 이전 간행본은 없으며, 16세기 5종(1.2%), 17세기 56종(13.0%), 18세기 80종(18.6%), 19세기 235종(54.6%), 20세기 54종(12.5%)이다.

둘째, 형성 시기는 홍인모가 홍낙취의 계자로 입적하면서 문중이 분리된 이후로 파악된다. 홍석주·한장석·한창수 시기에 집서량이 많았다.

셋째, 집서별 특성은 풍산홍씨는 내부 인물의 저술물의 축적 및 외부 간행물 유입, 교육용 집서 경향이 드러나나 한창수는 수집에 집중하여 내사본 『홍재전서』를 비롯 『정묘어필』, 『진연의괘』 3종, 정조 구장본 등이 집서되었다.

넷째, 주제별 특성은 교육과 학술활동을 위한 경·사·자부의 진적이 구비되어 있으며, 집부에는 가학의 경향과 문중인물의 교유, 학술활동 결과물 및 학파성이 반영되어 있다. 가학의 경향은 노론계로 분석되며 한창수 이후부터는 수집문고의 양상을 띠면서 문고의 학파성이 붕괴되었다.

다섯째, 판본별 특징은 간인본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숙수념』, 『현수갑고』, 『표룡을침』, 『항해병합』은 원고본으로 유일본이며, 홍석주의 『상예회수』, 한장석의 『경향미로』 등과 함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중국본은 홍석주와 한창수 시기에 집서되었다.

3.2 수당문고(綏堂文庫)

驪興閔氏의 수당문고¹⁴⁾는 조선 말기 戚臣 綏堂(또는 藕堂) 閔泳達家에서 형성된 173종 1,435책으로 東喬 閔泰植(1903-1981)¹⁵⁾씨가 1973년 기증하여 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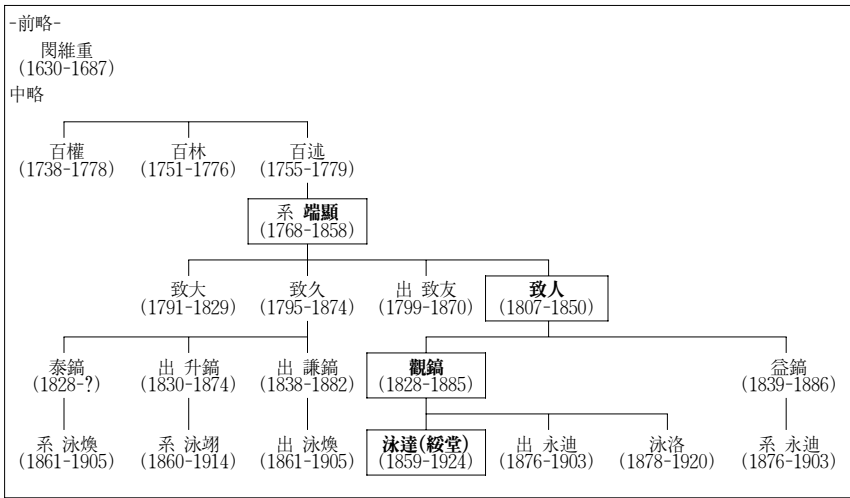
14) 서지조사는 1977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고서목록』에 수록된 「수당문고」 부분을 활용하였으며, 실사를 통해 서지사항을 파악하였다.

15) 민영달의 대를 잇는 系子로 입적된 閔台植(1893-1958)과는 다른 인물이다.

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관리되고 있다.

3.2.1 문고의 형성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정권을 장악했던 권세가문으로 소위 閔光勳의 세 아들 閔耆重, 閔鼎重, 閔維重 형제의 자손들을 일컫는 ‘三房派’ 중 하나인 민유중의 후손 閔鎭永의 손자 군수 閔百述(1755-1779) 슬하에 계자로 입적한 閔端顯과 넷째 아들 閔致人의 직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민영달에 의해 확충되었다.



<그림 3> 여흥민씨 민영달 가계도

첫째, 閔端顯(1768-1858)·閔致人(1807-1850) 때로 집서된 장서는 총 73종으로 전체 장서의 41.2%이다. 민단현은 4남을 두어, 장남은 閔致大(1791-1829), 차남은 고종의 외조부 閔致久, 삼남은 閔致友(1799-1870)이며 사남이 민치인이다.

둘째, 민치인의 장남 閔觀鎬(1828-1885) 시기로 14종이 집서되었으며 전체 장서의 8.0%이다.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셋째, 민영달¹⁶⁾ 시기(1859-1924)이다. 민영달은 省齋 許傳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해거재 홍현주의 사위로,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구한 공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오영섭, 2010, 85). 집서된 장서는 87종으로 전체 장서의 50.3%인데, 이는 민영달이 척실로서 권력과 재력을 겸비하고 전적의 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형성 시기와 집서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수당문고 형성현황

(단위: 종(책))

형성 내용	四部	筆寫本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石版本	新鉛活字本	計	비율 (%)
閔端顯 (1768-1858) · 閔致人 (1807-1850)	經	2(2)	24(153)	1(21)	·	·	·	27(176)	37.0
	史	6(16)	10(123)	10(69)	·	·	·	26(208)	35.6
	子	3(8)	5(40)	7(30)	1(10)	·	·	16(88)	21.9
	集	·	2(26)	1(3)	1(3)	·	·	4(32)	5.5
	소계	11(26)	41(342)	19(123)	2(13)	·	·	73(503)	41.2
閔觀鎬 (1828-1885)	經	·	2(8)	1(3)	·	·	·	3(11)	21.4
	史	·	·	2(6)	·	·	·	2(6)	14.2
	子	1(1)	6(44)	·	·	·	·	7(45)	50.0
	集	1(1)	1(6)	·	·	·	·	2(7)	14.2
	소계	2(2)	9(58)	3(9)	·	·	·	14(69)	8.0
綏堂 閔永達 (1859-1924)	經	1(1)	24(183)	·	2(14)	1(8)	·	29(207)	33.3
	史	6(28)	4(100)	4(5)	1(4)	·	4(62)	19(199)	21.8
	子	1(1)	9(256)	·	·	2(98)	·	12(355)	13.8
	集	3(3)	14(92)	3(16)	5(14)	·	3(9)	27(33)	31.0
	소계	11(33)	51(631)	7(21)	8(32)	3(106)	7(71)	87(894)	50.3
총계 種(冊)(%)		24(61) (13.9)	100(999) (57.8)	29(153) (16.7)	10(45) (5.8)	3(106) (1.7)	7(71) (4.0)	173(1435)	100

3.2.2 주제별 분석

경부 59종(34.1%), 사부 47종(27.2%), 자부 34종(19.7%), 집부 33종(19.0%)이며, 특징적인 주제군은 경학 및 유가류, 잡사류, 정법 및 직관류, 유서류, 별집류

16) 閔泳達(1859-1924). 자는 公武, 호는 綏堂 또는 藕堂.

및 전기류의 다섯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세부유속은 <표 4>와 같다.

<표 4> 사부분류에 따른 수당문고의 주제별 분포

(단위: 종(책))

사부	류목	수량	비율(%)	계	비율(%)
經	四書類	12(42)	20.3	59(394)	34.1
	書類	4(15)	6.8		
	小學類	10(40)	16.9		
	詩類	6(42)	10.1		
	易類	3(17)	5.1		
	禮類	11(139)	18.6		
	總經類	1(5)	1.7		
	春秋類	8(90)	13.5		
	孝經類	4(4)	6.8		
	소계	59(394)	100		
史	系譜類	2(5)	4.2	47(413)	27.2
	紀事本末類	1(6)	2.1		
	別史類	2(17)	4.2		
	史評類	1(4)	2.1		
	雜史類	12(36)	25.5		
	傳記類	5(26)	10.6		
	政法類	6(89)	12.7		
	正史類	1(31)	2.1		
	詔令奏議類	2(5)	4.2		
	職官類	5(20)	10.6		
	抄史類	1(5)	2.1		
	編年類	9(169)	19.1		
		소계	47(413)		
子	其他宗教類	1(1)	2.9	34(456)	19.7
	道家類	2(9)	5.9		
	兵家類	1(1)	2.9		
	藝術類	1(1)	2.9		
	儒家類	13(46)	38.2		
	類書類	11(366)	32.3		
	醫家類	4(31)	11.8		
	天文算法類	1(1)	2.9		
	소계	34(456)	100		
集	簡牘類	1(1)	3.0	33(172)	19.0
	別集類	18(83)	54.5		
	小說類	3(48)	9.0		
	詩文評類	1(1)	3.0		
	總集類	10(39)	30.3		
	소계	33(172)	100		
총계		173(1,435)		173(1,435)	100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경학 및 유가류는 72종으로 전체 장서의 41.6%이다. 시기는 민단현·민치인 시기와 민영달 때로 양분된다.

잡사류는 13종으로 문고 전체 장서의 7.5%이다. 당쟁 관련서이며 대부분 민영달 시기에 집서된 것으로 정치사, 특히 士禍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인현왕후 폐위와 관련한 남인 및 노·소론 간의 분쟁에 대한 정치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정법 및 직관류는 총 11종(6.3%)으로 官版書가 대부분으로 문중 인물이 관판간행본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서류는 총 11종으로 전체 장서의 6.4%이다. 민단현 시기와 민영달 시기로 양분된다. 『見睫錄』은 우리 역사를 우리의 관점에서 정리하려는 민족주의 진영의 노력의 결과물로 민영달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이 있다.

별집류와 전기류의 장서는 총 23종으로 전체 장서의 13.3%이며 다른 문중문고에 비해 비중이 매우 적다.

3.2.3 판종별 분석

필사본은 24종으로 전체 장서의 13.9%, 목판본 100종(57.8%), 금속활자본 29종(16.8%), 목활자본 10종(5.8%), 신연활자본 7종(4.0%), 석판본 3종(1.7%)이다. 탁본은 소장본이 없다.

필사본 24종에 문중인물의 학술활동 결과물인 저술본이 없다는 점이 수당문고의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시문의 창작과정에서 생산되는 초고본류나 원고본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데, 문고형성의 시기가 다른 문중문고에 비해 비교적 짧고 문고 형성에 기여한 인물이 적다는 점과, 후손이나 門人들이 한미하여 문중 기반의 학풍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 학자보다는 관료 출신이 많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문고의 유전 과정에서 장서의 일부가 산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목판본 100종은 국내본 66종, 중국본 33종, 일본본 1종이다. 중국본의 비중이

19%로 높은 편이며 집서 시기는 민단현과 민치인 시기에 4종, 민관호 시기 1종, 민영달 시기 28종이다.

금속활자본 29종은 무신자본 9종, 임진자본 4종, 정유자본 8종, 전사자본 4종, 재주정리자본 3종, 정리자체철활자본 1종이다. 민단현 시기 17종, 민관호 시기 3종, 민영달 시기 9종이 집서되었다. 비교적 금속활자본 소장 비중이 높은 점은 이 문종의 위상을 반영한다. 기타 목활자본 10종, 신연활자본 7종, 석판본 3종이다. 수당문고의 목활자본은 대부분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목활자본으로 조선 후기 목활자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장서이다.

3.2.4 수당문고의 서지적 특성

수당문고를 장서의 간행 시기, 문고의 형성 시기, 집서별 특성, 주제별 특성, 판본별 특성으로 나누어 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행 시기는 1600년 이전 간행본은 소장본이 없고, 17세기 31종(17.9%), 18세기 45종(26.0%), 19세기 79종(45.7%), 1900-1924년 18종(10.4%)이다.

둘째, 문고의 형성 시기는 민단현·민치인-민관호-민영달의 4대, 3단계에 걸쳐 형성되었다. 민단현과 민치인 시기는 유가사상 연구의 기본서가 집서되었고, 민영달 시기는 민영달의 사상적 경향이 반영된 집서로 확충되었다.

셋째, 집서별 특성은 문중인물의 저술류가 없다는 점으로, 문중 인물들이 대부분 학자가 아닌 관료였던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서에 학파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형성 시기와 관련이 있다.

넷째, 주제별 특성은 가학의 경향이 반영된 주제군은 잡사류와 시문류 및 전기류로 문중의 선대 역사와 관련한 잡사류의 비율이 높고, 시문류와 전기류의 장서에 선대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의 저술에 집중되어 있다. 장서의 학파적 경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민영달 이전엔 기호학과 노론계로 분석된다.

다섯째, 판본별 특성은 전체 장서 173종 중 필사본 24종(13.9%), 목판본 100종(57.8%), 금속활자본 29종(16.8%), 목활자본 10종(5.8%), 신연활자본 7종(4.0%),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판본 3종(1.7%)이며 탁본은 소장본이 없다. 관관 금속활자본의 비중이 높고, 국내 간행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간행된 전적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3.3 성호문고(星湖文庫)

성호문고¹⁷⁾는 경기도 안산과 충청도 예산을 세거지로 하던 驪州李氏 李瀼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이자 조카인 李秉休의 집안에서 형성된 166종 755책으로 1993년 李墩衡씨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여 별치문고로 관리되고 있다.

『星湖先生全集』에 수록된 『家狀』에 의하면, 이익이 지은 四書三經과 家禮, 近思錄, 心經, 小學의 『疾書』, 文集과 詩集, 『四七新編』, 『喪威前後錄』, 『藿憂錄』, 『僮說』, 『自卜編』, 『觀物編』, 『百諺解』, 『海東樂府』 등이 있고, 편서로 퇴계의 어록인 『李子粹語』, 『李先生禮說』 등 총 백여 책이 집안에 家藏되어 있다¹⁸⁾고 하였으나 장서에는 없는 전적이 많다. 이익의 『질서』로 판단되는 책이 시중에 산견되고, 소장본에 보이는 ‘黃驪後人’, ‘李德九印’이 날인된 『野堂遺稿』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리치몬드 문고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전적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159).

3.3.1 문고의 형성

성호문고는 少陵 李尙毅(1560-1624)의 후손으로 소위 ‘少陵派’로 지칭되는 이상익의 일곱째 아들 李志安의 장자 梅山 李夏鎭의 직계 후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문고 형성에 기여한 성호 이익 일문의 가계도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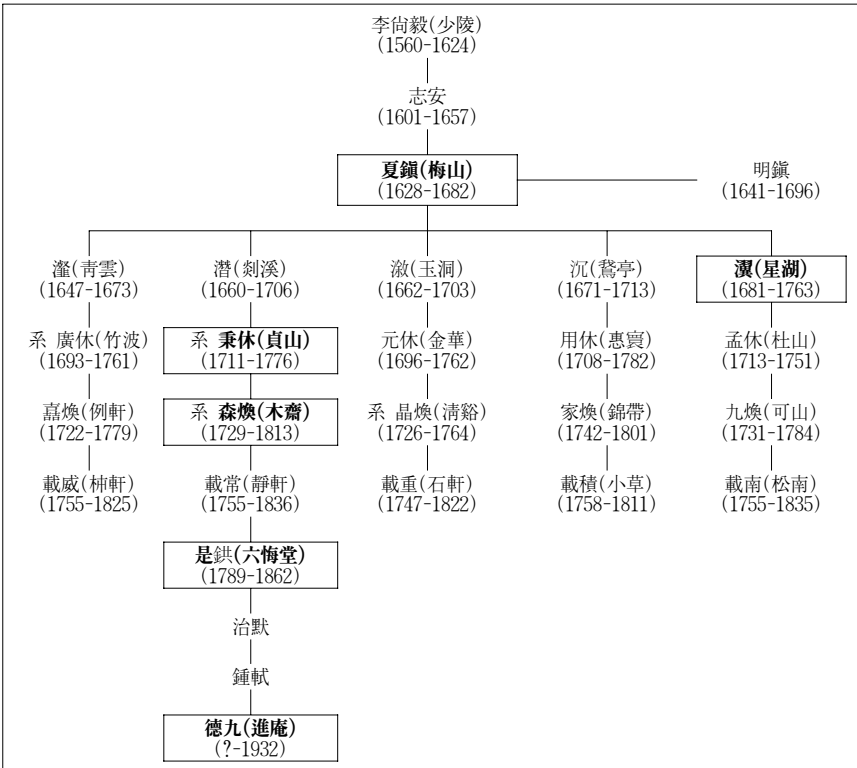
첫째, 李夏鎭(1628-2682)¹⁹⁾ 시기로 집계된 전적은 23종으로 전체 전적의 13.9%이며 문고의 기틀이 되었다. 이 시기 李明鎭²⁰⁾ 또한 저술을 남겼다. 경부가

17) 성호문고 장서 서지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X』(2008)을 참조하였다.

18) 李秉休(1764). 『星湖先生全集: 附錄』 卷之一, 『家狀』.

19) 李夏鎭(1628-1682). 자는 夏卿, 호는 梅山·六寓堂.

14종으로 이 시기 집서 전적의 66.6%이며 성호예학의 연구와 발전에 기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행본의 비중이 높다.



<그림 4> 여주이씨 이익 가계도

둘째, 李灑(1681-1763)²¹⁾과 李秉休(1711-1776)²²⁾ 시기로 李潛, 李澈, 李沉, 李元休와 李用休도 저술을 남겨 문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형성된 전적은 54종으로 전체 장서의 32.5%이다. 문중인물의 저술이 집적되면서 전형적인 문중문고로

20) 李明鎮(1641-1696). 자는 明卿. 덕산현감 역임.

21) 李灑(1681-1763). 자는 自新, 호는 星湖.

22) 李秉休(1710-1776). 자는 景協, 호는 貞山.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증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성장하기 시작했다.

<표 5> 성호문고 형성현황

(단위: 종(책))

형성	내용	四部	筆寫本 種(冊)	木板本 種(冊)	金屬活字本 種(冊)	木活字本 種(冊)	石版本 種(冊)	新鉛活字本 種(冊)	計	비율 (%)
梅山 李夏鎭 (1628-1682)	經		1(6)	12(70)	1(5)	·	·	·	14(81)	66.6
	史		·	·	1(28)	·	·	·	1(28)	4.8
	子		·	·	·	·	·	·	·	·
	集		1(1)	4(81)	·	1(2)	·	·	6(184)	28.6
	소계		2(7)	16(151)	2(33)	1(2)	·	·	21(193)	12.6
星湖 李瀛 (1681-1673) · 貞山 李秉休 (1711-1776)	經		8(16)	7(34)	·	·	·	·	15(51)	27.8
	史		7(8)	2(13)	2(52)	·	·	·	11(73)	2.0
	子		2(32)	2(17)	·	·	·	·	4(49)	47.4
	集		22(96)	2(52)	·	·	·	·	24(148)	44.4
	소계		39(52)	13(117)	2(52)	·	·	·	54(321)	32.5
木齋 李森煥 (1729-1813)	經		4(4)	7(30)	·	1(6)	·	·	12(40)	25.5
	史		10(11)	1(1)	·	·	·	·	11(12)	23.4
	子		3(3)	·	·	·	·	·	3(3)	6.4
	集		20(22)	1(2)	·	·	·	·	21(24)	44.7
	소계		37(40)	9(33)	·	1(6)	·	·	47(79)	28.3
六梅堂 李是鉉 (1789-1862)	經		2(2)	7(24)	·	·	·	·	9(26)	69.2
	史		1(2)	·	·	·	·	·	1(2)	7.7
	子		·	·	·	·	·	·	·	·
	集		3(6)	·	·	·	·	·	3(6)	23.0
	소계		6(10)	7(24)	·	·	·	·	13(34)	7.8
進庵 李德九 (?-1932)	經		·	6(38)	·	·	1(8)	·	7(46)	22.6
	史		2(2)	2(5)	·	·	·	4(9)	8(16)	25.8
	子		·	1(3)	·	·	·	·	1(3)	3.2
	集		8(11)	2(4)	·	·	2(4)	3(8)	15(63)	48.4
	소계		10(13)	11(86)	·	·	3(12)	7(17)	31(128)	18.7
총계 種(冊) (%)		94(222) (56.6)	56(411) (33.7)	4(85) (2.4)	2(8) (1.2)	3(12) (1.8)	7(17) (4.2)		166(755)	100

셋째, 李森煥²³⁾ 시기이다. 이삼환은 형 李嘉煥²⁴⁾과 함께 경·사·자·집에 두루 통달하였다. 李家煥, 淸谿 李晶煥, 淸潭 李重煥, 謙齋 李鳴煥 등도 문고

23) 李森煥(1729-1814). 자는 子木, 호는 木齋·少眉. 이병휴의 학문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24) 李嘉煥(1722-1779). 호는 例軒·芸圃. 모든 사물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여 아들 李載威와 天生萬物·人爲萬事로 구분한 實學的 類書 『物譜』를 저술하였다.

발전에 기여하였다. 집서량은 47종으로 전체 장서의 28.3%이다.

넷째, 六悔堂 李是鉉(1789-1862) 시기이다. 이시흥은 문고의 전적들을 정리하고 선대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였다. 전적의 정비에 집중했으며 증가된 전적은 13종으로 전체 장서의 7.8%이다.

다섯째, 李德九²⁵⁾ 때이다. 이익의 문집을 정리하여 간행하는 등 문고의 전적들과 선대의 유적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시기에 李翊九는 『讀史劄記』를 문고에 남겼으며, 이덕구와 『성호선생문집』을 간행하였다. 장서는 총 31종으로 전체 문고의 18.7%로 성호문고의 중흥기라 할만하다. 성호문고의 형성현황은 <표 5>와 같다.

3.3.2 주제별 분석

경부 57종(34.3%), 사부 32종(19.3%), 자부 8종(4.8%), 집부 69종(41.6%)이며 세부유속은 <표 6>과 같다. 특징적인 주제군은 ‘경학·예학 및 유가류’, ‘유서류’, ‘조령·주의류’, ‘전기류’, ‘시문류’로 대별된다.

경학·예학 및 유가류는 61종(36.7%)으로 비중에서 가학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이 중 예학 관련서는 27종으로 전체 장서의 15.9%이다. 장서를 통해 성호예학의 출발점을 짐작할 수 있으며 문중 인물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문의 예학은 특정 세대가 아닌 이하진 이전부터 관련 장서를 수집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가학이었음이 확인된다.

유서류는 총 3종뿐이나 실학사 연구에 중요한 『星湖先生僊說』, 『物譜』가 있어 실학에 대한 가학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조령·주의류는 6종이며 이 중 문중인물의 저술은 『星湖藿憂錄』, 『錦帶殿策』, 『독사차기』 등 3종이다. 이익은 『성호곽우록』 저술 동기를 ‘재야에 있는 평민은 국가의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지만,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백성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분수에 넘치는 안을 제시하는 것’²⁶⁾이라 하였다.

25) 李德九(?-1932). 이익의 7세손으로 자는 俊卿, 호는 進庵.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금대전책』은 이가환이 정조가 제시한 策文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유일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저술이다.

<표 6> 사부분류에 따른 성호문고의 주제별 분포

(단위: 종(책))

사부	류목	수량	비율(%)	계	비율(%)
經	四書類	14(46)	24.5	57(244)	34.3
	書類	4(21)	7.0		
	小學類	5(6)	8.8		
	詩類	5(29)	8.8		
	易類	3(24)	5.2		
	禮類	25(117)	35.0		
	孝經類	1(1)	1.7		
	소계	57(244)	100		
史	別史類	4(23)	12.5	32(131)	19.3
	雜史類	6(7)	18.7		
	傳記類	6(6)	18.7		
	政法類	2(2)	6.2		
	正史類	3(51)	9.3		
	詔令奏議類	6(9)	18.7		
	地理類	2(3)	6.2		
	職官類	1(1)	3.1		
	編年類	2(29)	6.2		
		소계	32(131)		
子	藝術類	1(1)	12.5	8(55)	4.8
	儒家類	4(20)	50.0		
	類書類	3(34)	37.5		
		소계	8(55)		
集	別集類	45(271)	65.2	69(325)	41.6
	隨筆類	1(1)	1.4		
	雜著類	3(4)	4.3		
	總集類	20(49)	29.0		
		소계	69(325)		
총계		166(755)		166(755)	100

전기류는 6종으로 이 중 이서의 행적을 한글로 기록한 저자미상의 『옥동니선 생형록』은 18세기 국어연구에 도움이 된다.

26) “… 匹夫而干國政 固爲罪矣 若平日邈然不思則授之以政 將何以處之 觀於孔孟可見 是以自爲學之初 留心世務 凡於國政之弊壞 民事之艱難 默究弊原 咸思揅策 乃撰藹憂錄 …”

시문류는 69종으로 전체 장서의 41.6%이다. 문중인물 저술은 총 39종이다. 문중 외부 저술은 이황의 『퇴계선생문집』과 韓浚謙의 『柳川遺稿』, 윤동규의 『邵南公遺稿抄』 등이다. 시문류에서 드러나는 학파적 경향은 영남학과 남인계로 분석된다.

3.3.3 판종별 분석

판종은 필사본 94종(56.6%), 목판본 56종(33.7%), 신연활자본 7종(4.2%)이며 그 외의 판본은 비중이 작다.

필사본 총 94종 중 수고본이 총 17종으로 대부분 미간행 원고본들이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필사본의 비중이 높는데, 문중인물들이 학문 연구에 치중한 학자집단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목판본 56종 중 42종이 경학·예학 및 유가류의 전적이며, 예학서는 13종으로 이하진 시기에 11종이 집서되어 예학연구의 기틀이 이 때 부터 다져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중인물 저술본은 2종으로, 숙종 34년(1708)에 간행한 『소릉선생문집』과 1922년 간행한 『성호선생문집』이다.

금속활자본은 초주한구자본 『자치통감강목』, 후기교서관인서체자본 『주역전의대전』, 무신자본 『국어』 등이고 목활자본은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 『纂圖互註周禮』이며, 탁본은 소장본이 없고 석판본은 2종, 신연활자본은 7종이다.

3.3.4 성호문고의 서지적 특성

장서의 간행 시기, 문고의 형성 시기, 집서별 특성, 주제별 특성, 판본별 특성으로 나누어 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의 간행 시기는 1600년 이전 간행본은 없으며, 17세기 26종(15.7%), 18세기 60종(36.1%), 19세기 65종(39.1%), 20세기 15종(9.0%)이다.

둘째, 형성 시기는 이하진-이익·이병휴-이삼환-이시홍-이덕구로 구분된다. 이하진 때 문고형성의 발판이 된 간행본이 유입되었다.

셋째, 집서별 특성은 초기에는 간행본의 유입이 있었으나 이익·이병휴 시기 이후부터는 간행본의 유입이 줄고 필사본류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넷째, 주제별 특성은 경학·예학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가학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성호예학’은 김장생의 ‘기호예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학과적 특성은 영남학과의 장서 비중이 높으며, 영남학과에 기반한 성호학과의 전개 양상이 문고에 반영되어 있어 성호학과 형성 흐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판본별 특성은 수고본 비중이 매우 높는데, 문중인물의 학술적 성과가 문중의 재정 형편상 간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때문으로 해석된다.

3.4 경설재문고(景雪齋文庫)

경설재문고²⁷⁾는 東萊鄭氏 중 ‘會洞鄭氏’로 불리는 景雪齋 鄭弘謙의 집안에서 형성된 문고로 전체 장서는 165종 401책이다. 후손 鄭守鉉씨가 1995년 3월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였다.

3.4.1 문고의 형성

회동정씨 정구의 후손 경설재 정홍겸 가계도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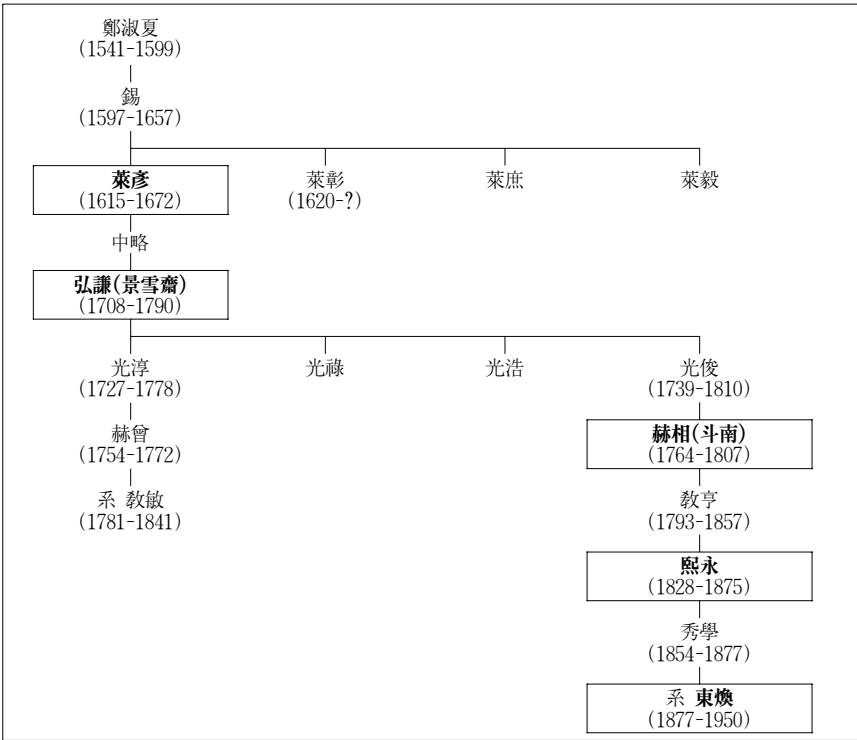
가계도에 의거 문중문고에 기여한 인물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鄭萊彦(1615-1672)의 회현동 세거기이다. 선대에 물려받은 장서 3종뿐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하다. 정숙하가 선무원종공신 1등에 서훈되어 받은 『宣武原從功臣錄券』과 權愷(1547-1624)가 편찬한 『薰陶坊鑄字洞志』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

둘째, 망우동에 세거했던 정태일(1682-1758)과 정홍겸(1708-1790)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장서는 23종으로 전체 장서의 13.9%이다. 중앙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

27) 경설재문고 소장 전적 서지조사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寄贈遺物目錄 I』(2002)과 『동래정씨家 기증유물로 본 조선시대 서울선비의 생활』(2003)을 참고하였다.

과 영조의 어필 탁본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화사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회동정씨 정흥겸 가계도

셋째, 鄭光俊(1739-1810)·鄭赫相(1764-1807) 시기로 형성된 장서는 63종으로 전체 장서의 38.2%이다. 정혁상은 선대에 형성된 장서에 경학류의 장서를 보충하였고, 그의 과거시험 준비 과정에서 생산된 장서가 집서되었다.

넷째, 충청북도 진천군에 이주해 살던 鄭教亨(1793-1857) 시기이다. 정교형·鄭熙永(1828-1875) 양대에 걸쳐 14종이 형성되어 전체 장서의 8.5%이다. 선대에 형성된 장서를 재정비하며 정교형이 남긴 기록들이 남아있다.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다섯째, 鄭東煥(1877-1950) 시기로, 신연활자본과 석판본의 증가가 있었으며 형성된 장서는 62종으로 전체 장서의 37.6%이다. 형성 현황을 도표화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경설재문고 형성현황

(단위: 종(책))

내용 형성	四部	筆寫本 種(冊)	木板本 種(冊)	金屬活字本 種(冊)	木活字本 種(冊)	石版本 種(冊)	新鉛活字本 種(冊)	拓本 種(冊)	計	비율 (%)
鄭萊彦 (1615-1672)	經	·	1(1)	·	·	·	·	·	1(1)	33.3
	史	·	·	·	2(2)	·	·	·	2(1)	66.6
	子	·	·	·	·	·	·	·	·	·
	集	·	·	·	·	·	·	·	·	·
	소계	·	1(1)	·	2(2)	·	·	·	3(3)	1.8
景雪齋 鄭弘謙 (1708-1790)	經	·	1(50)	1(19)	·	·	·	·	2(69)	8.6
	史	4(4)	·	1(3)	·	·	·	2(2)	7(9)	30.4
	子	3(3)	1(1)	·	1(3)	·	·	·	5(7)	21.7
	集	9(10)	·	·	·	·	·	·	9(10)	39.1
	소계	16(17)	2(51)	2(22)	1(3)	·	·	2(2)	23(95)	13.9
斗南 鄭赫相 (1764-1807)	經	11(13)	13(73)	·	·	·	·	·	24(86)	38.1
	史	2(2)	·	·	·	·	·	·	2(2)	3.2
	子	3(4)	·	·	·	·	·	1(1)	4(5)	6.3
	集	32(38)	1(11)	·	·	·	·	·	33(49)	52.4
	소계	48(57)	14(84)	·	·	·	·	1(1)	63(142)	38.2
鄭熙永 (1828-1875)	經	·	5(20)	·	·	·	·	·	5(20)	35.7
	史	·	4(35)	1(3)	·	·	·	·	5(38)	35.7
	子	1(1)	1(1)	·	·	·	·	·	2(2)	14.3
	集	2(3)	·	·	·	·	·	·	2(3)	14.3
	소계	3(4)	10(56)	1(3)	·	·	·	·	14(63)	8.5
鄭東煥 (1877-1950)	經	4(5)	4(8)	·	·	·	3(3)	·	11(16)	17.7
	史	·	9(11)	1(3)	·	·	4(6)	1(1)	15(21)	24.2
	子	15(20)	2(2)	·	·	·	·	1(1)	18(23)	29.0
	集	10(12)	3(4)	·	2(3)	2(5)	1(14)	·	18(38)	29.0
	소계	29(37)	18(25)	1(3)	2(3)	2(5)	8(23)	2(2)	62(98)	37.6
총계 種(冊)(%)		96(115) (58.2)	45(217) (27.3)	4(28) (2.4)	5(8) (3.0)	2(5) (1.2)	8(23) (4.8)	5(5) (3.0)	165(401)	100

3.4.2 주제별 분석

주제는 경부 43종(26.0%), 사부 31종(18.8%), 자부 29종(17.6%), 집부 62종

(37.6%)이다. 세부유속은 <표 8>과 같다.

<표 8> 사부분류에 따른 경설재문고의 주제별 분포

(단위: 종(책))

사부	류목	수량	비율(%)	계	비율(%)
經	四書類	14(44)	32.5	43(192)	26.0
	書類	4(17)	9.3		
	小學類	9(11)	20.9		
	詩類	5(20)	11.6		
	易類	3(20)	7.0		
	禮類	4(27)	9.3		
	春秋類	3(52)	7.0		
	孝經類	1(1)	2.3		
소계	43(192)	100			
史	系譜類	2(2)	6.4	31(73)	18.8
	金石類	2(2)	6.4		
	別史類	5(8)	16.1		
	雜史類	1(2)	3.2		
	傳記類	8(11)	25.8		
	政法類	2(2)	6.4		
	地理類	5(5)	16.1		
	抄史類	2(18)	6.4		
	編年類	4(22)	12.9		
소계	31(73)	100			
子	農家類	1(1)	3.4	29(37)	17.6
	兵家類	3(4)	10.3		
	術數類	9(14)	31.0		
	藝術類	5(5)	17.2		
	儒家類	4(4)	13.8		
	類書類	5(7)	17.2		
	醫家類	1(1)	3.4		
	天文算法類	1(1)	3.4		
소계	29(37)	100			
集	簡牘類	1(1)	1.6	62(100)	37.6
	別集類	16(32)	25.8		
	詞曲類	1(1)	1.6		
	小說類	2(15)	3.2		
	詩文評類	1(1)	1.6		
	雜著類	1(1)	1.6		
	總集類	40(49)	64.5		
소계	62(100)				
총계		165(402)		165(402)	100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특정적 주제군은 경학 및 유가류, 정법류, 지리류, 術數類, 금석·예술류, 시문류로 대별된다.

경학 및 유가류는 47종으로 전체 장서의 28.5%이다. 문중 자체 교육용 기본 장서가 고루 구비되어 있다.

정법류는 단 2종뿐이지만 이 문중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정숙하가 선조 38년(1605) 왕으로부터 받은 『선무원종공신록권』과 순조 7년(1807)경에 조선왕실의忌日을 기록한 품격있는 필사본 『國忌』가 그것이다.

술수류는 총 9종으로 대부분 천문학과 관련한 풍수지리서 및 점술서 등이며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인간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비결서인데, 이 가문의 생활문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지리류는 5종으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높은 장서이다. 광해군 13년(1621) 간행한 『훈도방주사동지』와 영조 36년(1760), 순조 10년(1810) 『忘憂洞誌』는 서울의 洞誌로는 유일하며 문중의 거주지 이동이 반영되어 있는 장서이다.

금석류 2종과 예술류 5종이며 정홍겸 시기에 內賜받은 것으로 보이는 『英祖御筆帖』 2종이 있다. 당시까지 이 문중이 영향력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시문류 62종 중 총집류가 40종으로 古詩를 모아 베낀 것과 科文類 들이다. 대부분 정혁상 때 형성된 장서이다.

3.4.3 판종별 분석

필사본 96종(58.2%), 목판본 45종(27.3%), 금속활자본 4종(2.4%), 목활자본 5종(3.0%), 신연활자본 8종(4.8%), 석판본 2종(1.2%), 탁본 5종(3.0%)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필사본의 비율이 높고²⁸⁾ 목판본을 제외한 금속활자본이나 목활자본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필사본은 대부분 轉寫本으로 학업 과정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집부의 비중이

28) 한상억문고 필사본 17.4%, 수당문고 필사본 13.9%, 성호문고 필사본 56.6%, 서계문고 필사본 34.1%.

높은 이유는 總集類가 많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의 靖忠祠 훼손을 반대하는 유림들의 呈狀을 모은 高宗 4년(1867)의 『靖忠祠呈狀』은 서원 훼손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목판본은 45종은 經部 23종(51.1%), 사부 14종(31.1%), 자부와 집부는 4종(8.8%)이다. 經部와 史部는 문중자제 교육을 위한 장서로 정혁상 시기에 全州河慶龍藏板 사서류의 장서가 구비되었다.

금속활자본은 정유자본 2종, 전사자본 2종이다. 목활자본 5종으로 『선무원종공신록권』, 『훈도방주자동지』 등이 있다. 이외에 탁본 5종, 석판본 2종, 신연활자본 8종이 소장되어 있다.

3.4.4 경설재문고의 서지적 특성

장서의 간행 시기, 문고의 형성 시기, 집서별 특성, 주제별 특성, 판본별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행 시기는 선조 33년(1600) 이전 간행본은 없다. 17세기 3종(1.8%), 18세기 24종(14.5%), 19세기 102종(61.8%), 1900년부터 1940년까지 36종(21.8%)이다.

둘째, 문고의 형성 시기는 정래언-정홍겸-정혁상-정교형·정동환 시기로 대별된다. 문반에서 무반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문중문고의 일단을 엿볼 수 있으며 가문의 유훈을 읽을 수 있다.

셋째, 집서별 특성은 형성 초기는 간행본의 유입이 있었으나 후대에는 내부에서 생산된 필사본류에 집중되었다. 교육용 기본 장서는 구비되어 있으나 인적교유나 문중의 영향력에 따른 외부 간행본의 유입흔적은 찾기 힘들다.

넷째, 주제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과적 경향은 드러나지 않는다. 관로 진출을 위한 과거시험 공부에 집중되어 창작물이 없고, 문중의 영향력이 쇠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판본별 특성은 필사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전사본 총집류가

많은데 가학의 진흥과 자제의 교육을 위해 생산된 것들이다. 古本이나 判官本の 비중은 적으나 『훈도방주자동지』, 『망우동지』 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3.5 서계문고(西溪文庫)

서계문고는 반남박씨 西溪 朴世堂과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문중문고이다. 현전 소장 전적은 137종 178책으로 종가의 문화재단에서 관리되고 있다.

문고에 속종 15년(1689)경 박세당의 주도하에 작성된 『가장서적』과(손계영, 2011, 222-255) 근세에 작성한 『장서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서적』에는 192종 638책이, 『장서목록』에는 422종 2,696책의 장서가 수록되어 있다. 『장서목록』²⁹⁾은 1897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작성자는 박승준으로 추정된다.

『가장서적』은 서명 및 책 수, 內賜本, 동일본의 件數 및 결락 책 수, 중국본(唐本) 여부, 대출자나 서책의 타 보관처 등을 적었으며, 『장서목록』은 서명 및 책 수, 내사본, 동일본의 건수와 구본(舊本) 여부 및 결락 책 수, 중국본(唐本, 常本) 및 일본본(倭本) 등을 기록하고 과본을 비롯하여 구본과 신간을 구분하고 책 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 두 장서목록에 수록된 장서의 현 소장처는 대부분 알 수 없지만, 金得臣의 문집 필사본 『栢谷集』과 비슷한 시기의 필사본 『二程語類』 4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朴弼基가 동생 朴弼謨(1683-1751)가 金城縣令으로 있던 景宗 4년(1724) 3월 금강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金剛日記』는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서계문고 소장본으로는 문중문고의 성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2종의 장서목록을 현전본과 대교 후, 등재된 장서 중 간행 시기 파악이 어려운 중국본과

29) 『장서목록』 수록 장서 중 현전본은 90종으로 47종이 누락되어 있다. 이 2종의 장서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장서와 2014년 현재 장서는 일치하지 않으며, 1689년 장서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장서 192종 중 현전본은 17종이고, 1897년 장서목록에 수록된 장서 422종 중 현전본은 90종이다. 1689년 장서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나 1897년 장서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현전본은 3종이며 두 목록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장서는 44종이다. 1689년 장서와 1897년 장서 사이에도 편차가 있어 누락된 장서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본, 필사본을 제외하고 책 수를 기준으로 간행 시기 확인이 가능한 도서를 추가하니 205종 1,299책이었다. 이를 현 소장본 138종 179책과 합치면 총 343종 1,478책이다. 이 343종을 대상으로 형성 시기와 문고의 서지적 분석을 하였다.

3.5.1 문고의 형성

서계문중이 朴尙衷-朴紹로 이어지는 반남박씨 대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계파를 형성한 것은 朴東善 때이다.

박세당가의 가계도는 <그림 6>과 같으며 이 가계도에 의거하여 문고의 형성 시기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계 박세당(1629-1703) 시기이다. 박세당³⁰과 두 아들 박태유,³¹ 박태보³²에 의해 집서된 장서는 179종(52.2%)이다. 朱子說의 절대화된 권위를 부정하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고전의 본뜻을 찾으려한 박세당의 학문관은 기존의 관념화된 성리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진보적인 학문을 촉진시키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학문관은 문고의 장서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朴弼基³³의 시기(1681-1739)로 집서된 장서는 54종(15.7%)이다. 박세당 사후 36년 동안 적지 않은 양을 집서하였으며 선대의 집서 경향을 이어갔다.

셋째, 박헌원(1746-1807)의 시기이다. 형성된 장서는 49종(14.3%)이다.

넷째, 박종길³⁴ 시기(1783-1873)이다. 형성된 50종(14.6%)이며 학파를 벗어난 권문세가의 간행물이 유입되면서 문고의 학파성이 희석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박제경³⁵ 시기(1831-1904)이다. 10종(2.9%)이 집서되었다. 이 시기에는 선대에 형성된 문고의 장서를 정비하여 『장서목록』을 작성하였다.

30) 朴世堂(1629-1703). 자는 季肯, 호는 潛叟·西溪樵叟·西溪.

31) 朴泰維(1648-1686). 자는 士安, 호는 白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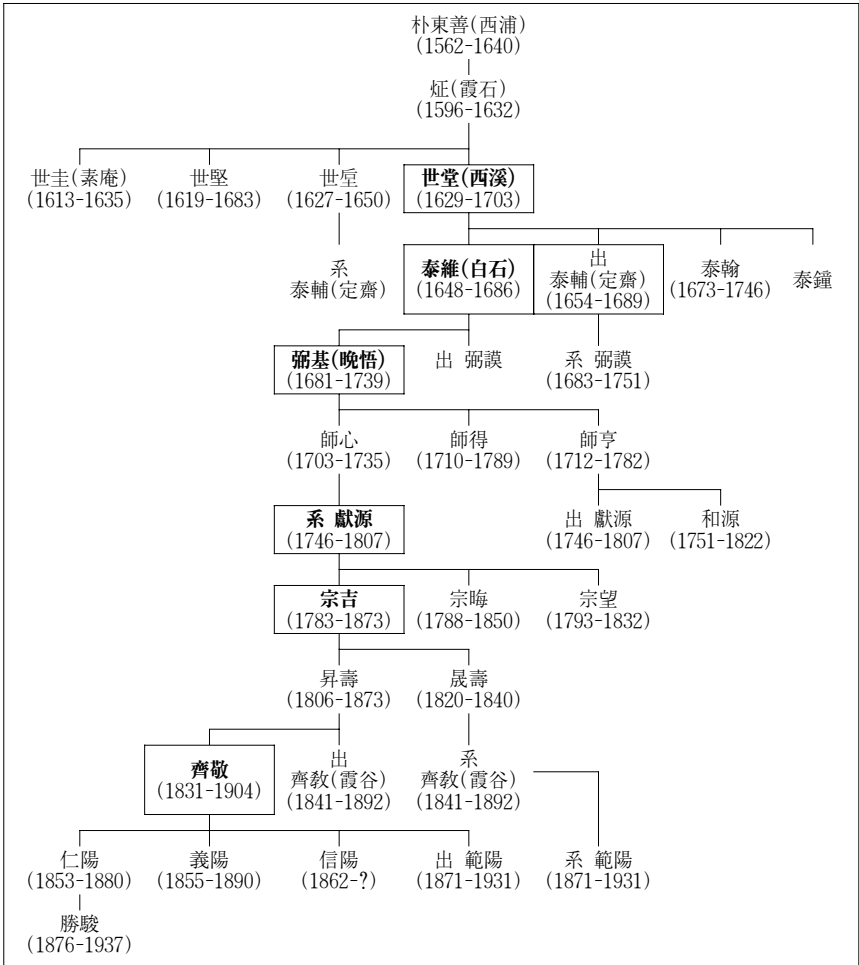
32) 朴泰輔(1654-1689). 자는 士元, 호는 定齋.

33) 朴弼基(1681-1739). 자는 敬休, 호는 晚悟.

34) 朴宗吉(1783-1873). 자는 穆如, 당호는 征邁堂.

35) 朴齊敬(1831-1904). 자는 用簡.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그림 6> 반남박씨 박세당 가계도

형성 시기 구분은 『가장목록』(1689)과 『장서목록』(1897)의 수록 내용을 참조하고 이하 다른 문고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문고의 형성 시기와 인물에 따른 분포를 분석하여 도표화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서계문고 형성현황

(단위: 종(책))

형성	내용	四部	筆寫本 種(冊)	木板本 種(冊)	金屬活字本 種(冊)	木活字本 種(冊)	拓本 種(冊)	計	비율 (%)
西溪 朴世堂 (1629-1703)	經		13(22)	11(48)	7(38)	·	·	31(108)	17.3
	史		17(18)	7(57)	7(44)	4(79)	32(36)	67(234)	37.4
	子		16(26)	7(36)	6(28)	·	·	29(90)	16.2
	集		22(30)	25(129)	3(18)	2(15)	·	52(192)	29.0
白石 朴泰維 (1648-1686)	소계		68(96)	50(270)	23(128)	6(94)	32(36)	179(624)	52.2
晚悟 朴弼基 (1681-1739)	經		1(2)	2(11)	2(12)	·	·	5(25)	9.3
	史		6(6)	1(4)	1(2)	·	6(15)	14(27)	25.9
	子		3(11)	3(75)	·	1(2)	·	7(88)	12.9
	集		14(14)	11(117)	3(22)	·	·	28(163)	51.8
	소계		24(33)	17(207)	6(36)	1(2)	6(15)	54(303)	15.7
朴獻源 (1746-1807)	經		·	5(30)	·	·	·	5(30)	9.8
	史		7(12)	9(134)	3(6)	·	4(4)	23(156)	46.9
	子		1(1)	1(9)	1(2)	·	·	3(12)	6.1
	集		6(6)	7(26)	5(12)	·	·	18(44)	36.7
	소계		14(19)	22(181)	9(20)	·	4(4)	49(242)	14.3
朴宗吉 (1783-1873)	經		·	13(76)	2(5)	·	·	15(81)	29.4
	史		4(21)	2(27)	4(5)	6(28)	4(4)	20(85)	39.2
	子		2(2)	·	·	·	·	2(2)	3.9
	集		2(3)	4(44)	6(60)	2(3)	·	14(110)	27.5
	소계		8(26)	19(147)	12(70)	8(31)	4(4)	51(278)	14.9
朴齊敬 (1831-1904)	經		·	2(4)	·	1(4)	·	3(8)	30.0
	史		3(3)	·	1(1)	·	·	4(4)	40.0
	子		·	·	·	·	·	·	·
	集		·	2(15)	·	1(4)	·	3(19)	30.0
	소계		3(3)	4(19)	1(1)	2(8)	·	10(31)	2.9
총계	種(冊) (%)		117(177) (34.1)	112(842) (32.6)	51(265) (14.9)	17(135) (4.9)	46(59) (13.4)	343(1478)	100

3.5.2 주제별 분석

경부 59종(17.2%), 사부 129종(37.6%), 자부 40종(11.7%), 집부 115종(33.5%)이다. 세부유속은 <표 10>과 같다. ‘경학 및 유가류’, 서계 가문의 기호예학을 반영하는 ‘예학류’, ‘잡사류’, ‘전기류’, ‘정법류’, ‘도가류’, ‘금석 및 예술·간독류’, ‘농가류’, ‘시문류’ 등이 서계문고의 특색이 드러나는 주요 주제군으로 분석된다.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증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표 10> 사부분류에 따른 서계문고의 주제별 분포

(단위: 종(책))

사부	류목	수량	비율(%)	계	비율(%)
經	四書類	23(55)	39.0	59(252)	17.2
	書類	6(31)	10.1		
	小學類	7(37)	11.9		
	詩類	4(26)	6.7		
	易類	2(14)	3.4		
	禮類	12(54)	20.3		
	春秋類	3(32)	5.0		
	孝經類	2(3)	3.4		
	소계	59(252)	100		
史	系譜類	2(32)	1.5	129(507)	37.6
	金石類	46(59)	35.6		
	目錄類	4(4)	3.1		
	別史類	5(20)	3.8		
	史表類	1(5)	0.7		
	雜史類	10(12)	7.7		
	傳記類	26(35)	20.1		
	政法類	15(72)	11.6		
	正史類	2(9)	1.5		
	詔令奏議類	5(33)	3.8		
	地理類	3(4)	2.3		
	抄史類	3(8)	2.3		
	編年類	7(214)	5.4		
	소계	129(507)	100		
子	農家類	1(2)	2.5	40(190)	11.7
	道家類	3(12)	7.5		
	釋迦類	1(1)	2.5		
	術數類	2(2)	5.0		
	藝術類	15(20)	37.5		
	儒家類	15(56)	37.5		
	類書類	1(70)	2.5		
	醫家類	1(25)	2.5		
	天文算法類	1(2)	2.5		
	소계	40(190)	100		
集	簡牘類	10(13)	8.7	115(529)	33.5
	別集類	81(480)	70.4		
	總集類	24(36)	20.9		
	소계	115(529)	100		
총계		343(1478)		343(1478)	100

경학과 예학 및 유가류의 장서는 74종으로 경학의 기본서가 망라되어 있다. 16종에 이르는 학술활동 성과물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세당이 『대학』·『중용』·

『논어』·『맹자』·『상서』·『시경』을 주해한 『思辨錄』과 『通說』 10종과 자손들에게 내린 『西溪遺戒』 등이 주목된다. 이 외에 박필기가 저술한 『春秋』의 주석서 『麟經集解』와 『訓學輯要』가 있다.

예학류는 총 12종(3.5%)으로 기호예학이 반영된 장서군이다. 문중인물의 저술로는 서계 박세당 저술 『喪祭記式』이 남아있다.

잡사류는 총 10종인데 『西溪雜錄』은 야사적 내용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朴獻源의 순조 1년(1801) 『일기』와 西溪影堂을 참배인사 기록인 『影堂瞻拜錄』과 『影堂時享時舉案』은 문중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로 의미가 있다.

전기류 중 반남박씨, 월성이씨, 완산이씨, 성산이씨, 성주이씨 등 5개 가문 10인이 결성한 친목계의 명단인 『五聯契座目』, ‘소론 13가문’의 자제들이 친목계첩인 『世講契帖』이 소장되어 있다. 오런계와 세강계와 계첩 원본이 소장된 사실은 이 가문이 소론의 중심점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친척간이거나 학과와 정파가 같았던 인물과 관련이 있는 장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정법류의 장서는 총 16종으로 문중인물의 녹권 및 방목이 주요 장서이다. 문중 인물이 등과한 방목을 포함되어 문중의 역사기록으로 의미가 높으며, 다른 문고에서는 소장 사례가 드문 옥책이나 교정청관문은 문중인물이 중앙의 요직에 재임한 사실을 대변한다.

금석류는 45종으로 전체 장서의 13.1%이다. 王羲之를 비롯 중국의 역대 명필의 서첩이 망라되어 있고 金生, 坦然, 韓濩 등 역대 명필의 서첩을 두루 구비하였다. 박태유와 박태보는 안진경체를 유행시킨 명서가로, 필첩류의 대부분은 박태유가 성첩한 것이다.

예술류는 총 15종으로 서화사적 가치가 높은 장서들이 집서되어 있다.

간독류는 박세당의 간찰첩 5건과 박태보의 서첩 1건, 박필기의 유묵첩 1건, 박사형의 간찰첩 1건이 있으며 윤증의 간찰을 모아놓은 『明翁簡帖』이 소장되어 있다. 박세당의 『서계유묵』 3첩은 보물 167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금석류 전적은 서계가문의 가학이 반영된 장서이다. 박태유와 박태보 시기부터 박필기, 박필모 세대까지 이어진 서예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소산물이 집서되어 있다.

시문류는 106종으로 전체 장서의 31%이며 이 중 문중인물 문집은 37종이다. 외부인물들의 문집 53종은 소론 계열 인물들의 문집들이다. 시문류의 장서에 반영되어 있는 가학과 학파적 경향은 초기에는 기호학과로서 노론과 소론의 간행물을 망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후 소론계열의 집서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다가 19세기에 이르면서 중앙 권세가의 전적으로 집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박세당은 도가사상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3종의 도가류 장서를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된다. 『句解南華眞經』과 『道德經』이 장서에 포함되어 있고 박세당이 지은 장자 주석서인 『남화경주해산보』가 있다.

목록류의 속종 15년(1689)에 작성된 『장서목록』, 1897년 경에 작성된 『가장서적』을 통해 문고의 형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장서를 관리하고 문중자제와 문인의 교육을 위해 문고를 활용했음이 확인된다.

3.5.3 판종별 분석

필사본 117종(34.1%), 목판본 112종(32.9%), 금속활자본 51종(14.9%), 목활자본 17종(4.9%), 탁본 46종(13.4%)으로 간행본의 비율이 고른 분포를 보이며 탁본의 비중이 다른 문중문고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신연활자본과 석판본이 없는 것은 문고의 성장이 근대적 인쇄가 활발해지기 전에 마감되었기 때문이다.

필사본 117종 가운데 94종이 문중인물의 저술이다. 외부 인물 저술은 대부분 글씨첩이다. 장서에 나타나는 가학은 기호학파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간독류와 예술류에 저자의 원본 글씨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書體, 즉 금석·서예 분야가 가학의 한 축이었음이 확인된다.

목판본은 총 112종(32.9%)으로 경부 33종, 사부 19종, 자부 10종, 집부 50종이다. 교육용 경서가 망라되어 있으며, ‘기호예학’ 관련 전적이 집서되어 있다. 기호학과 인물들의 문집류가 두루 집서되어 있고 선대에 이어 坡平尹門과의 교유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금속활자본은 총 51종으로 무신자본 21종, 운각인서체자본 11종, 전사자본 7종,

정유자본 4종, 현종실록자본 3종, 임진자본과 희현당자본(또는 정리자체철활자)이 각 2종, 정리자본 1종이다. 대부분 관판으로, 문중이 누대에 걸쳐 번영기를 지속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활자본은 17종으로 경부 1종, 사부 10종, 자부 1종, 집부 5종이다. 내사본으로 宣祖實錄字本 『이십공신회맹록』을 비롯하여 『실록청제명기』, 『기범연의』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꾸준히 집서되어 있다.

탁본은 총 46종이며 대부분 서체와 관련한 집서이다. 박태유 형제는 안진경체의 유행을 주도하며 당시의 서풍을 일신시킨 주역들이었다.

3.5.4 서계문고의 서지적 특성

장서의 간행 시기, 문고의 형성 시기, 집서별 특성, 주제별 특성, 판본별 특성으로 나누어 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의 간행 시기는 16세기본 2종, 17세기 169종(49.3%), 18세기 97종(28.3%), 19세기 75종(21.8%)이다.

둘째, 문고의 형성 시기는 박세당·박태유-박필기-박헌원-박종길-박제경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박세당·박태유·박태보 시기에 가장 많이 집서되었다.

셋째, 집서별 특성은 외부 간행본의 유입은 꾸준하였으며, 문중인물의 저술은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파평윤문과 의령남문의 사가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며, 관판본 또한 전 시기에 걸쳐 내사를 통해 꾸준히 유입되었다.

넷째, 주제별 특성은 가학의 진흥과 문중자제의 교육을 위한 경서가 구비되어 있다. 가학의 경향이 반영된 주제군은 금석류이다. 노장사상 연구의 결과물과 실학적 학문관을 보여주는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 학과적 경향은 기호학과로 분석되며 서인계에서 소론계로의 변모양상이 집서에 반영되어 있다.

다섯째, 판본별 특성은 수고본의 비중이 높아 문중인물의 학술활동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생산된 창작물들을 보존되어 있다.

4. 서울·경기 문중문고의 종합분석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한상억문고, 수당문고, 성호문고, 경설재문고, 서계문고 소장 장서는 총 1,277종 7,844책이다. 문고 전체 소장본의 종합분석을 통해 집서별, 판본별, 주제별, 학과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4.1 집서별 특성

전체 장서의 집서별 특성은 소장본 간행 시기별 분포, 인물별 집서분포, 간행본과 필사본의 분포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살렸다.

1) 문중문고 소장본 전체 장서의 간행 시기와 각 문고별 간행 시기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간행 시기별 소장 종수와 문고의 소장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서울·경기 문중문고 소장본 간행 시기별 분포

(단위: 종수(비율))

시기	한상억문고	수당문고	성호문고	경설재문고	서계문고	문고종합
1500년대	4(0.9)	0	1(0.6)	0	2(0.6)	7(0.54)
1600년대	57(13.2)	31(17.9)	25(15.0)	3(1.8)	169(49.3)	285(22.31)
1700년대	79(18.4)	45(26.0)	60(36.1)	24(14.5)	97(28.3)	305(23.88)
1800년대	236(54.9)	79(45.7)	65(39.2)	102(61.8)	75(21.8)	557(43.61)
1900-40년	54(12.5)	18(10.4)	15(9.0)	36(21.8)	0	123(9.63)
계	430(100)	173(100)	166(100)	165(100)	343(100)	1,277(100)

1,277종 7,844책의 간행 시기별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간행본의 종수는 1800년대 간행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임진왜란 이전의 고본은 매우 적다. 서계문고는 1600년대 간행본이 169종(49.3%)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경설재문고는 1900년~1940년까지 기간에 36종(21.8%)의 집서가 이루어져 1900년대 간행본 비율이 높은 편이다.

둘째, 다섯 곳의 문중문고 소장본의 간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계문고

는 가장 이른 시기인 명종 22년(1567) 간행 『자치통감강목』부터 집서되었고, 성호 문고는 선조 18년(1585) 간행의 『書傳大文』, 한상억문고는 선조 21년(1588) 중국 목판본 『春秋穀梁註疏』부터 집서되었다. 경설재문고와 수당문고는 16세기 간행본은 소장본이 없으며, 경설재문고는 선조 38년(1605) 『선무원종공신록권』, 수당문고는 선조 40년(1607) 중국목판본 『新編古今事文類聚別集』부터 집서되었다.

셋째, 소장본의 간행 시기로 집서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한상억문고·수당문고·성호문고·경설재문고는 1800년대에 활발했으며, 한상억문고와 경설재문고는 1800년대 집서 비율이 각 54.9%, 61.8%로 전체 문고의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서계문고는 1600년대에 집서비율이 49.3%로, 다른 문고에 비해 간행본의 간행 시기가 빠른 책의 집서 비율이 높다. 1900년 이후의 집서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각 문중문고가 1940년 이전에 기증 등의 이유로 성장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서계문고는 1904년경에, 성호문고는 1924년경에, 한상억문고는 1937년에, 수당문고는 1937년경에, 경설재문고는 1940년경에 집서활동이 중단되었다.

2) 각 문고의 집서분포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도표화하면 <표 12>와 같으며 이 표에 의거 인물별 집서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고별 집서 경향은 인물에 따라 다르다. 한상억문고는 홍석주 시기(25.6%)부터 한장석 시기까지는 고르게 성장하였으나 한창수 시기(50.2%)에 이르러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수당문고는 민단현 시기(41.2%)와 민영달 시기(50.3%)에 집서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성호문고는 이익·이병휴 시기(32.5%)와 이삼환 시기(28.3%)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후대에도 꾸준한 집서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설재문고는 정형상 시기(38.2%)와 정동환 시기(37.6%)에 집중되어 있다. 서계문고는 박세당·박태유 시기(52.2%)에 집서가 활발했으며 후대에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집서활동으로 문고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시기별 집서경향은 한상억문고는 홍석주를 비롯한 풍산홍씨가의 인물들은 저술을 통한 장서의 증가뿐만 아니라 적극적 購得활동을 통해 장서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한창수 시기에는 간독류 및 예술류에 집중된 집서경향이 드러나며 학파나 정파를 초월한 광범위한 집서로 확대되었다. 수당문고는 민단현 시기 관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관 간행본의 유입을 통한 장서의 증가가 있었고, 개인적 관심 주제에 대한 집서를 통한 장서의 증가가 있었다. 성호문고는 이익·이병휴 시기에는 자생적인 연구 결과물에 의한 장서의 증가가 있었으며, 이삼환 시기에도 꾸준한 학술활동의 결과물이 다양하게 생산되어 장서의 증가를 가져왔다. 경실재문고는 정혁상 시기에 정확서의 확충과 과거시험 준비과정에서 양산된 전사본류의 증가가 있었으며 정동환 시기에 적극적으로 집서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계문고는 박세당·박태유·박태보 시기에 전체 장서의 과반이 넘는 장서가 집서되었다. 학술활동의 결과물과 활발한 집서활동의 결과가 장서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박태유는 금석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서하였다.

<표 12> 각 문고의 인물별 집서분포

(단위: 중(%))

문고명	인물	집서량(%)		계
한상억문고	한원리(1766-1812)	4	0.9	430
	홍석주(1774-1842)	110	25.6	
	한필교(1807-1878)	54	12.5	
	한장석(1832-1894)	44	10.2	
	한광수(1862-1933)	216	50.2	
수당문고	한상억(1898-1949)	2	0.4	173
	민단현(1768-1850)	73	41.2	
	민관호(1828-1885)	14	8.0	
성호문고	민영달(1859-1924)	87	50.3	166
	이하진(1628-1682)	21	12.6	
	이익(1681-1673) · 이병휴(1711-1776)	54	32.5	
	이삼환(1729-1813)	47	28.3	
	이시홍(1789-1862)	13	7.8	
경실재문고	이덕구(?-1932)	31	18.7	165
	정래언(1615-1672)	3	1.8	
	정홍겸(1708-1790)	23	13.8	
	정혁상(1764-1807)	63	38.2	
	정희영(1828-1875)	14	8.5	
서계문고	정동환(1877-1950)	62	37.6	343
	박세당(1629-1703) · 박태유(1648-1686)	179	52.2	
	박필기(1681-1739)	54	15.7	
	박현원(1746-1807)	49	14.3	
	박종길(1783-1873)	51	14.9	
	박제경(1831-1904)	10	2.9	

셋째, 선대 문중인물의 간독류나 서첩류가 주축이었던 문고의 집서형태에서 19세기 말에 이르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서예가의 서첩이나 유명인의 간독류 등으로 확대되었다. 교육과 가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문중문고는 19세기에 이르면서 특정 주제나 특정 분야의 장서로 확대되는 수집문고적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한상억문고의 한창수 시기와 수당문고의 민영달 시기는 문중문고 내의 개인의 수집성향이 반영된 개인문고로 볼 수 있다.

3) 간행본과 필사본의 소장비율을 비교하면 문고 형성 인물의 관직 재임 여부 및 경제형편에 따른 집서별 특성이 드러난다. 장서에서 대량생산이 드문 탁본자료와 근대 인쇄기술의 도입 이후 간행된 석판본과 신연활자본을 제외한 각 문고에 소장된 필사본 대비 목판본·활자본 소장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당문고는 소장본 163종 중 필사본은 24종(14.7%), 간행본 139종(85.3%)이다. 수당문고는 1800년대 집서량이 전체 문고의 45.7%를 차지하는데, 수당문고는 형성 시기가 다른 문고에 비해 늦은 19세기부터지만 간행본의 집서량이 많은 이유는 문고형성 인물들이 관직에 재임하였던 결과로 풀이된다. 한상억문고는 전체 391종 중 필사본은 75종(19.2%)이며, 간행본은 316종(80.8%)이다. 풍산홍씨가와 청주한씨가의 인물들은 대대로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직에 재임하였는데, 관관 금속활자본을 비롯한 간행본의 집서량이 많았음이 확인되어 문중인물의 관직재임 여부는 간행본의 유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계문고 소장본 297종 중 필사본은 117종(39.4%)이며, 간행본은 180종(60.6%)이다. 박세당, 박태유, 박태보를 비롯하여 후대의 박필기, 박헌원, 박종길, 박승수 등 대부분 관직에 재임했다. 경설재문고는 150종 중 필사본은 96종(64%)이고 간행본은 54종(36%)이다. 경설재문고 문중은 원래 文班이었으나 후대에 武班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가문으로 가학의 진흥을 통한 문반으로의 신분회복을 꾀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간행본의 유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성호문고 소장본 158종 중 필사본은 94종(59.5%)이고 간행본은 64종(40.5%)이다. 이하진 이외에는 대부분 산림의 학자들로 관관을 비롯한 간행본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문중인물의 관직 재임은 문중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집서

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간행 시기별 분포, 인물별 집서분포, 간행본과 필사본의 분포 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경기지역 문중문고의 집서별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중문고 소장본의 간행 시기는 문중 및 문중문고의 생성시기와 궤를 같이 한다. 16세기 말 간행본부터 소장되어 17세기 간행본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18세기에 기틀이 다져졌으며 19세기는 문중문고가 정착된 시기로 판단된다.

인물별 집서분포를 통해 분석되는 집서경향은 문고 형성 초기인 17세기와 18세기까지는 개인별 관심주제와 문중의 학파성에 따른 집서행태를 보이며, 19세기에 이르면서 구득을 통한 적극적 집서활동으로 문고에서 견지되어온 학맥이나 학파성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관직에 재임한 인물이 많은 문중은 관관 간행본의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더 나아가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경우 서점을 통한 구득에 의한 집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적의 역사성·문화성에 집중하는 개인의 수집문고로 발전하였다.

4.2 판본별 특성

판본별 특성을 밝히기 위해 소장본의 판본의 종수와 비율을 나타내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 의거 소장본의 판본별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중문고 전체 소장문헌 총 1,277종 7,844책의 판본별 분포는 필사본 406종 (31.79%), 목판본 530종(41.50%), 금속활자본 160종(12.52%), 목활자본 61종(4.77%), 탁본 64종(5.01%), 석판본 18종(1.40%), 신연활자본 38종(2.97%)이다. 장서의 판본 비율 순서는 ‘목판본, 필사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신연활자본, 석판본’의 양상을 띤다. 가장 많은 간행방식은 목판본인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의 학술활동으로 생산된 필사본이 그 뒤를 잇는다. 금속활자본이나 목활자본이 적은 이유는 금속활자본은 활자가 대부분 관의 전용이었고 간행 부수도 적었던 것이, 목활자본은 목활자의 조성이 까다로웠던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3> 서울·경기 문중문고 종합 판본 분포

(단위: 종수(비율))

판본	한상익문고	수당문고	성호문고	경설재문고	서계문고	문고 종합
필사본	75(17.4)	24(13.9)	94(56.6)	96(58.2)	117(34.1)	406(31.79)
목판본	217(50.5)	100(57.8)	56(33.7)	45(27.3)	112(32.9)	530(41.5)
금속활자본	69(16.0)	29(16.8)	4(2.4)	4(2.4)	51(14.9)	160(12.52)
목활자본	30(6.9)	10(5.8)	2(1.2)	5(3.0)	17(4.9)	61(4.77)
탁본	13(3.0)	·	·	5(3.0)	46(13.4)	64(5.01)
신연활자본	16(3.7)	7(4.0)	7(4.2)	8(4.8)	·	38(2.97)
석판본	10(2.3)	3(1.7)	3(1.8)	2(1.2)	·	18(1.4)
계	430(100)	173(100)	166(100)	165(100)	343(100)	1,277(100)

둘째, 필사본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문중인물의 학술활동이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가학이 발달한 문중문고에 소장된 필사본에는 문중인물의 遺墨을 비롯한 문중인물의 수고본 비중이 높다. 필사본 저술류에는 출판을 위한 초고본·원고본·정고본, 나아가 간행본에 이르는 저술 생산 단계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편찬과정을 엿볼 수 있다. 가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문중문고 필사본에 轉寫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설재문고의 필사본은 대부분 전사본이다.

셋째, 탁본은 문고별 소장 편차가 심하다. 수당문고나 성호문고에는 소장본이 없으며 서계문고의 탁본 장서는 가학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넷째, 신연활자본과 석판본의 경우는 1900년대 근대문물 도입 후의 집서로, 소장량 분포는 형성 종료 시기와 관련 있다. 1900년대에 집서활동이 활발했던 한상익 문고의 경우 신연활자본, 석판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4.3 주제별 특성

사부 주제 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제별 집서 비중이 문중인물의 독서 경향이나 가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조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문중문고 전적에 관한 서지적 연구

<표 14> 사부분류에 따른 서울·경기 문중문고 종합 주제별 분포

(단위: 종(책))

사부	유목	수량	비율(%)	계	비율(%)
經	四書類	90(336)	31.3	287(1,622)	22.47
	書類	21(110)	7.3		
	小學類	41(209)	14.3		
	詩類	23(153)	8.0		
	易類	15(92)	5.2		
	禮類	65(452)	22.6		
	總經類	3(41)	1.0		
	春秋類	19(218)	6.6		
	孝經類	10(11)	3.5		
소계	287(1,622)	100			
史	系譜類	12(52)	3.5	342(2,026)	26.78
	紀事本末類	1(6)	0.3		
	金石類	57(70)	16.6		
	目錄類	4(4)	1.6		
	別史類	21(100)	6.1		
	史評類	1(4)	0.3		
	史表類	2(3)	0.6		
	書誌類	2(235)	0.6		
	雜史類	33(65)	9.6		
	傳記類	77(151)	22.5		
	政法類	39(247)	11.4		
	正史類	10(203)	2.9		
	詔令奏議類	16(47)	4.7		
	地理類	21(90)	6.1		
	職官類	7(22)	2.0		
	抄史類	7(37)	2.0		
	總史類	1(2)	0.3		
	編年類	31(688)	9.0		
소계	342(2,026)	100			
子	其他宗教類	1(1)	0.6	155(1,060)	12.13
	農家類	2(3)	1.3		
	道家類	5(21)	3.2		
	兵家類	5(9)	3.2		
	西學類	1(3)	0.6		
	釋迦類	1(1)	0.6		
	術數類	14(24)	9.0		
	藝術類	34(43)	21.9		
	儒家類	49(189)	31.6		
	類書類	24(538)	15.5		
	醫家類	9(99)	5.8		
	雜家類	3(80)	1.9		
	天文算法類	5(8)	3.2		
	總子類	2(41)	1.3		
	소계	155(1,060)	100		

사부	유목	수량	비율(%)	계	비율(%)
集	簡牘類	23(28)	4.7	493(3,136)	38.60
	別集類	318(2,441)	64.5		
	小說類	9(114)	1.8		
	隨筆類	1(1)	0.2		
	詩文評類	2(2)	0.4		
	雜著類	4(5)	0.8		
	總集類	136(545)	27.6		
총계	소계	493(3,136)	100		
총계		1,277(7,844)	100	1,277(7,844)	100

5개 문중문고 전체 장서의 사부 주제 분포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 287종(22.47%), 사부 342종(26.78%), 자부 155종(12.13%), 집부 493종(38.60%)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사부분류의 전체 분포양상은 ‘집부, 사부, 경부, 자부’의 순서로 확인된다. 한상억문고와 성호문고는 집부의 장서가, 수당문고와 경설재문고는 경부의 장서가, 서계문고는 사부의 장서가 높은 비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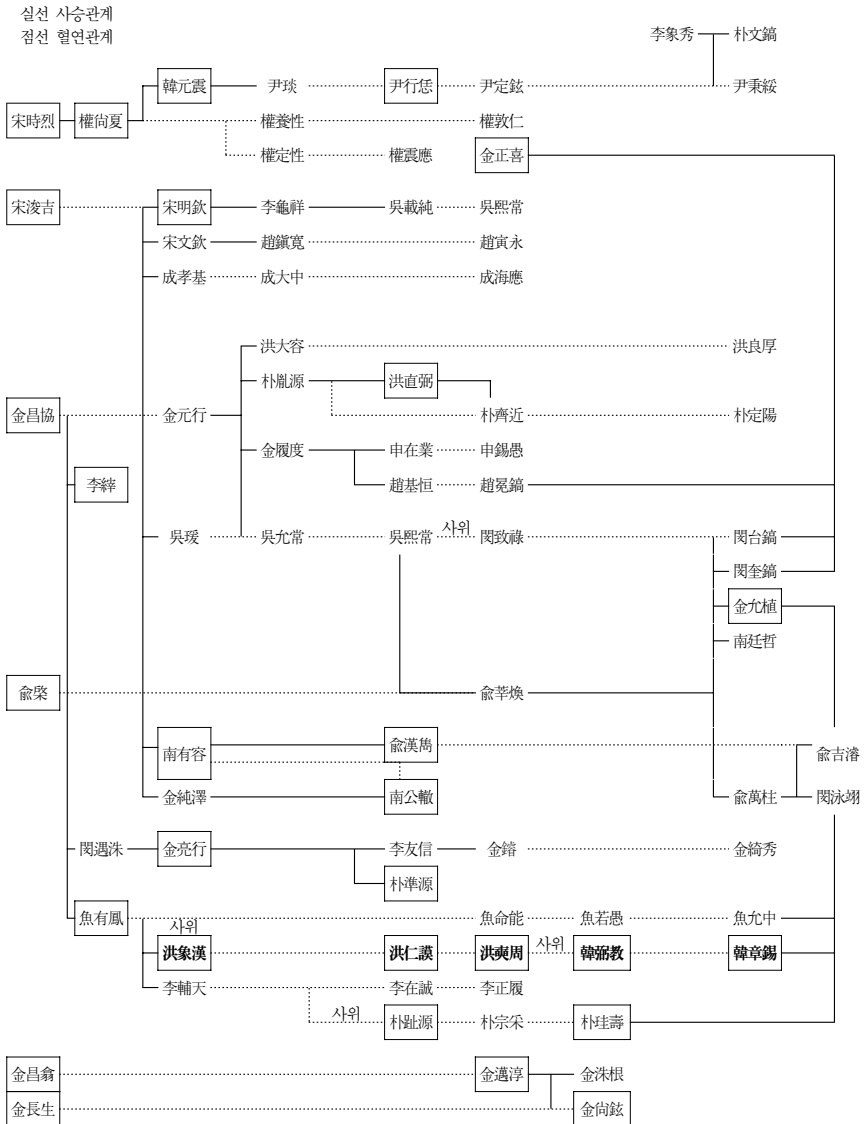
서울·경기 문중문고의 전체 장서의 주제별 특성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분포에서 두드러지는 집서군에는 가학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즉, 특정 주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은 가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호문고의 예류, 수당문고의 잡서류와 서계문고의 금석류는 가학이 반영된 장서군이다.

둘째, 별집류와 전기류의 장서에는 문중인물의 학파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별집류의 저자와 전기류의 被傳者는 문중인물이 속해있는 학파의 저술로, 대외적 교류를 통해 집서된 장서이다.

셋째, 경학류의 장서에는 동종의 서적이 많아 경학의 기본서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의 집서경향을 알 수 있으며, 경학서는 가학의 진흥과 문중 자체 교육을 위한 기본 장서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문중문고에는 동종의 경전이 시기별, 판본별로 다양한 이본이 소장되어 있다.

4.4 학파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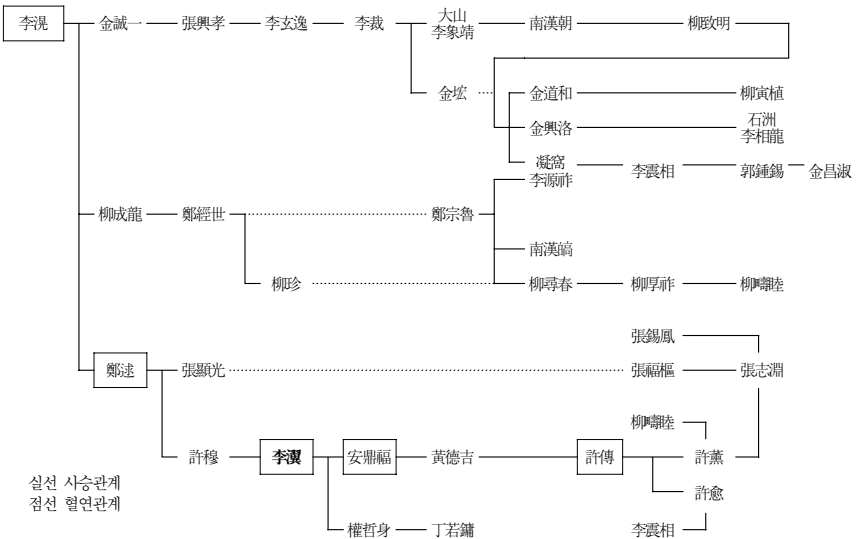


<그림 7> 老論 京華士族의 學風繼承(유봉학, 1995, 124)

문중문고에 반영된 학파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류와 별집류에 인맥이나 학파와 관련된 장서를 살피고 가학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정 주제군의 장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주제군에서 문중인물의 저술을 배제하면 그 문중문고의 학파적 경향이 드러난다. 학파적 경향이 드러나지 않는 경설재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의 문고를 분석하였다.

1) 한상역문고에 반영된 학파적 경향은 기호학과 노론계로 분석된다. 한국사상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노론 경화사족의 학통 계승 인물관계도 <그림 7>을 토대로 한상역문고에 저술이 소장되어 있는 인물은 이름을 네모로 처리하였다.

노론계 학자들의 문집이 소장되어 있으며 후대에 이를수록 학파 인물의 저술 소장 비율이 적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한창수 시기는 학파 계열이 다른 인물들의 저술이 대거 유입되어 문고의 학파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림 8> 南人學統 繼承(유봉학, 1995, 114)

2) 수당문고는 여흥민씨 문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호학과 노론계로 분류되

이다. 한국사상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영남학과 남인의 학통계승 인물관계도 <그림 8>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성호문고의 장서에 포함된 인물은 이황을 비롯하여 정구, 안정복, 허전 등이 확인된다.

4) 박세당의 학맥은 기호학과 소론계로 정의된다. 그러나 박세당은 학문적 연원에 있어 계보를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학문 연구방식이 사승관계에 의하기보다는 독학의 측면이 강하며, ‘탈주자학자’로 평가되어 양명학이나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개방적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세당의 학문적 경향을 이어받은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서계문고의 학파적 경향을 한 갈래로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소론의 영수였던 명재 윤증의 당숙으로 소론의 핵심 가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기호학과 소론 경화사족으로서의 서계문고의 학파적 성향을 살펴보면 <그림 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론으로 분류되는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저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서울·경기지역 경화사족의 문중문고는 조선시대 양대 학파로 일컬어지는 기호학과와 영남학과 가운데 어느 한 곳에 편중된 경향이 없이 개방적 성향을 드러내며 경학과 예학의 주제에 따라 두 학파의 견해를 모두 참고하여 수용하고 있음이 문고의 장서에 드러난다. 문고의 발달시기에 따라 학파적 경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문고의 발달 단계별로 학맥을 같이 하는 인물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어 가학과 학파변화 양상을 읽을 수 있다.

5. 결 론

조선시대 후기 및 근대 서울·경기지역의 다섯 문중문고 소장 전적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중문고의 형성과정과 소장 전적에 반영되어 있는 서지적 성격은 한상억문고는 전체 430종 3,775책이며 홍상한·홍석주·한원리·한필교·한장식·한창수에 의해 18세기 초부터 1937년까지 성장하였다. 소장 전적의 주제

는 집부(49.5%)와 사부(24.2%)의 비율이 높으며, 판본별로는 목판본(50.4%)과 금속활자본 69종(16.0%)의 비율이 높았다. 기호학과 노론계의 인물 저술이 유입되어 발달하였으나, 한창수 시기부터 기존의 집서경향에서 벗어나 망라성을 띠기 시작했으며 괄목할만한 장서 증가와 더불어 기존의 학파성이 희석되었다.

수당문고는 민단현·민관호·민영달에 의해 18세기 후반부터 1924년까지 성장하였다. 전체 173종 1,435책이며 주제별로는 경부(34.1%), 사부(27.2%)의 비율이 높다. 기호학과 노론계의 가문으로 성장하였으나 장서에 반영된 학파나 인맥의 저술은 매우 적는데 19세기의 사회경향과 근대 문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호문고는 이하진·이익·이병휴·이삼환·이시홍·이덕구에 의해 17세기 후반부터 1932년까지 성장하였다. 전체 166종 402책으로 경부(34.3%)와 집부(41.6%)의 주제 비율이 높으며, 판본은 필사본(56.6%)과 목판본(33.7%)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남학과 남인계를 근간으로 하는 성호예학의 발달이 반영된 장서이다.

경설재문고는 정래언, 정홍겸, 정혁상, 정희영, 정동환에 의해 17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 형성되었다. 전체 165종 402책으로 경부(26.0%)와 집부(37.6%)의 비율이 높다. 판본은 필사본(58.2%)과 목판본(27.3%)이 대부분이다. 문반에서 무반으로의 신분이동과 문중의 부흥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반영되어 있다.

서계문고는 박세당·박태유·박태보, 박필기, 박현원, 박종길, 박제경에 의해 17세기 초반부터 1904년까지 성장하였다. 전체 343종 1,478책으로 경부 59종(17.2%), 사부 128종(37.3%), 자부 40종(11.7%), 집부 116종(33.8%)이며 판본은 필사본 117종(34.1%), 목판본 112종(32.9%), 금속활자본 51종(14.9%), 목활자본 17종(4.9%), 탁본 46종(13.4%)이다. 형성 초기 기호학과 저술 유입으로부터 후대에 이르면서 소론계 인물의 저술 유입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부터는 학파성이 다소 배제된 집서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둘째, 다섯 곳의 문중문고를 통합하여 집서별, 판본별, 주제별, 학파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행 시기는 1500년대부터 나타나지만, 1800년대가 43.61%, 1700년대가 23.88%

로 간행본의 비중이 높다. 서계문고는 1600년대 간행본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경설재문고의 경우 1900년대 간행본 비율이 높다. 한상억문고·수당문고·성호문고·경설재문고는 1800년대에 활발한 집서활동이 있었고, 서계문고는 1600년대부터 집서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집서경향은 17세기, 18세기까지는 가학과 문중의 학파성에 따른 집서형태를 보이고, 19세기에는 구득을 통한 적극적 집서활동으로 문고에서 견지되어 온 학맥이나 학파성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관직에 재임한 인물이 많은 문중은 관관 간행본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구득을 통한 집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적의 역사성·문화성에 집중하는 개인의 수집문고로 발전하였다.

2) 판본별 분포는 목판본(41.50%), 필사본(31.79%), 금속활자본(12.52%), 목활자본(4.77%), 신연활자본(2.97%), 석판본(1.40%)의 양상을 띤다. 필사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문중인물의 학술활동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3) 사부 주제 분포는 경부 287종(22.47%), 사부 342종(26.78%), 자부 155종(12.13%), 집부 493종(38.60%)이다. 소장 비중이 높은 주제군에는 가학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별집류와 전기류의 장서에는 문중인물의 학파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경학류는 문중자제교육용으로 집서되었다. 한상억문고와 성호문고는 집부의 장서가, 수당문고와 경설재문고는 경부가, 서계문고는 사부의 장서가 높은 비중을 보인다. 별집류와 전기류의 장서비율은 문중인물의 학맥을 통한 활발한 인적교유를 방증하며, 더불어 문중의 사회적 위상을 대변한다.

4) 학파적 특성은 한상억문고는 기호학과 노론계, 성호문고는 영남학과 남인계, 서계문고는 기호학과 소론계로 분석된다. 수당문고나 경설재문고는 학파적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학파성은 19세기 이후 편중된 경향이 없이 개방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문고의 발달시기에 따라 학파적 경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시기별로 가학과 학파변화 양상을 읽을 수 있다.

조선조 후기 및 근대에 형성되어 발달된 서울·경기지역 문중문고 다섯 곳의 장서에는 문고를 형성한 문중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문중문고 집서활동의 주제별, 형태별, 시대별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문헌

- 강명관.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 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 18, 19세기 京華世族.” 『민족문화사연구』 9(1996). 171-19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수집 韓國 古典籍目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X』.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8.
- 김동항. “沖齋 遺物館 藏書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1.
- 김필동.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과평윤씨 노종파(魯宗派)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20권 3호(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31-47.
- 박명희. “門中文獻의 기록범위와 자료의 활용가능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2호(2001). 131-167.
- 배현숙. “退溪 藏書의 集散考: 個人文庫의 書院文庫化의 一例로서.”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255-285.
- 배현숙. “谷城 丁氏家의 默容室 藏書.” 『文獻情報學報』 5(1993). 135-169.
- 손계영. “世堂의 장서목록 『家藏書籍』.” 『藏書閣』 26(2011). 222-255.
- 안승준. “眞城李氏家 寄託 古文書의 內容과 價値.” 『장서각』 1(1999). 137-175.
-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古書目錄』. 서울: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1977.
- 오영교. “恒齋 鄭宗榮과 草溪 鄭氏 關東派 門中에 관한 연구.” 『江原文化史研究』 7(2002). 15-44.
- 오영섭. “고종 충신 민영달(1859~1924)의 정치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3권(2010). 79-120.
- 옥영정. “咸陽朴氏 家傳 古文獻의 內容과 資料의 特性.”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255-285.
- 유봉학. “실학의 계보와 학풍.” 『한국사 시민강좌』 48(2011). 37-54.
- 이성무.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가계와 학통.” 『한국실학연구』 2(2000). 1-23.

- 이춘희. “朝鮮朝의 鄕校文庫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5(1978). 1-30.
- 이춘희. “門中文庫에 대하여 - 特히 壽峰精舍 · 映奎軒 兩文庫를 中心으로 -.” 『한국비블리아』 2(1974). 88-101.
- 이해준. “조선 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현실』 48(2003). 169-190.
- 임영란. “『擊蒙要訣』 초간본과 현전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54집 (2013). 259-293.
- 임영란.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城大學校 大學院. 2005.
- 정구복. “서울 및 畿湖地方의 古文書 現況과 그 性格.” 『민족문화논총』 13(1992). 229-233.
- 정구복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정승모. “조선 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 방식.” 『역사민속학』 23(2006). 61-92.
- 정인보. 『蒼園文錄』.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67.
- 최재석. “朝鮮時代의 門中의 形成.” 『한국학보』 9권 3호(1983). 2-44.

2. 웹사이트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세계문화재단. <<http://www.seogy.com>>.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http://library.yonsei.ac.kr>>.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